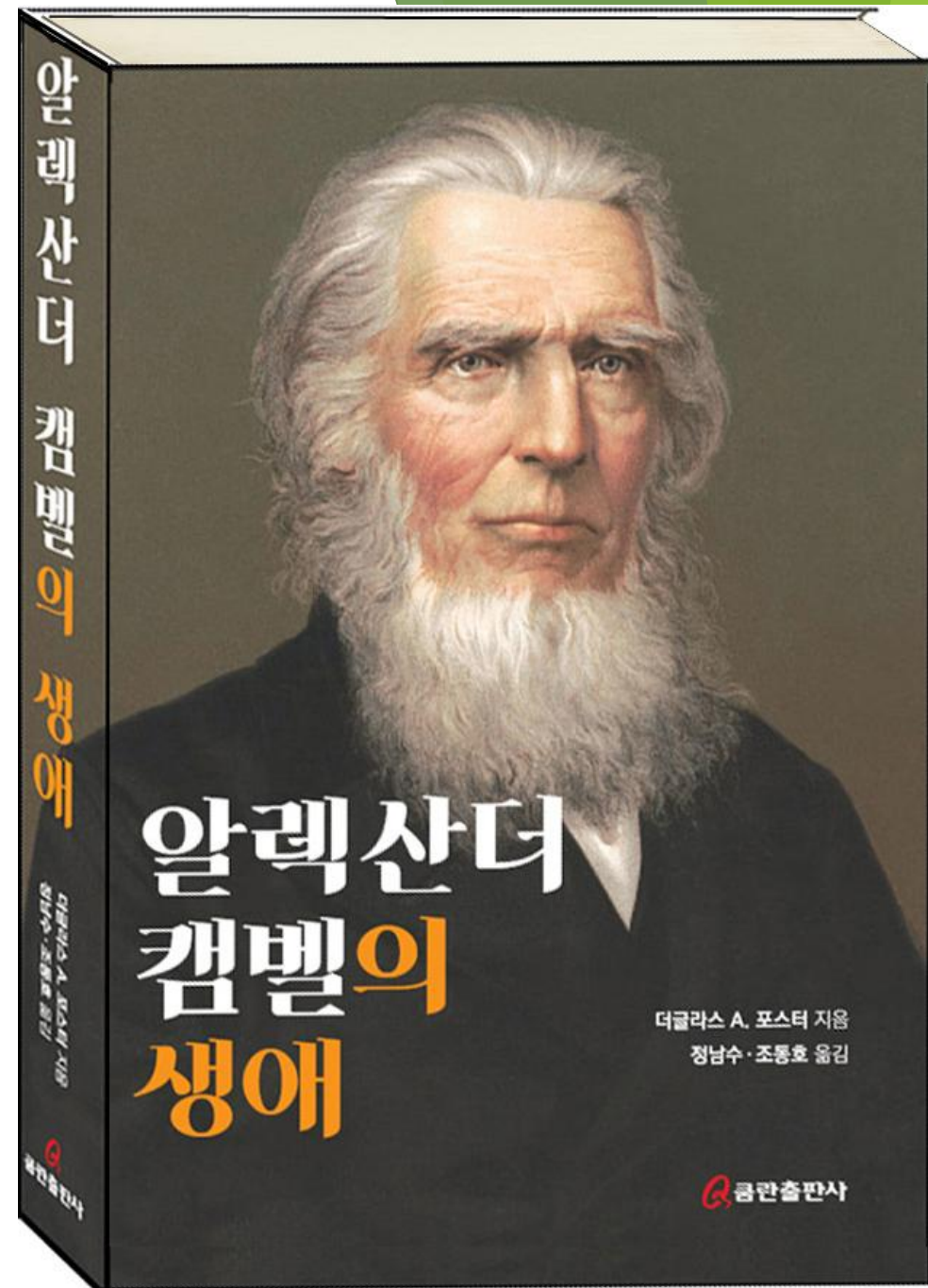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 그의 개혁의 파장과 비상

A Life of Alexander Campbell

조동호 목사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소장

[파일다운로드] http://kccs.info/알렉산더 캠벨의 생애_그의 개혁의 파장과 비상.pdf



**알렉산더 캠벨,
그의 개혁의 파장과 비상**

알렉산더 캠벨은 누구인가?

- 환원(복원)과 일치의 개혁가 -

- 알렉산더 캠벨(1788-1866)은 19세기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개혁가들 중 한 사람이며, 오늘날 전 세계 800만 명 규모의 스톤-캠벨 운동(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핵심 창시자이다.
- 알렉산더 캠벨은 교회 개혁가, 인습타파자, 토론가, 정치가, 편집자와 출판가, 설교가, 교육가, 성경학자, 대중연설가, 조직가, 사회개혁가, 신학자였다.
- 그가 헌신했던 평생의 목표는 “신약성경의 교회(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환원)하고, 그 울타리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일치)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왜 21세기에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를 읽어야 하는가?

- 환원(복원)과 일치의 개혁가 -

- 21세기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캠벨의 메시지가 맞닿아 있다
 - 교단주의 피로감: 한국 교회는 300여 교파로 분열되어 있고, 교단 정체성보다 **성경적 교회를 찾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 환원운동가들은 20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하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그러나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믿음의 문제에는 일치, 의견의 문제에는 자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하자.” “서로 다를 자유는 있으나, 갈라질 자유는 없다.”
 - 이 메시지는 **교단주의를 넘어서는 신앙의 본질 회복**이라는 21세기적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

왜 21세기에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를 읽어야 하는가?

- 환원(복원)과 일치의 개혁가 -

- **캠벨은 개신교 복음주의의 원형을 회복한 인물이다.**
 - 한국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작고 낮설다 보니 오해를 받지만, 캠벨은 성경의 절대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십자가 중심의 복음, 회심과 성령의 내주, 신약성경 교회의 회복, 매주 성찬, 침례의 회복을 강조한 철저한 복음주의자였다.
 - **캠벨은 새로운 교리를 만든 적이 없다. 교파들이 만들어낸 인간 전통을 걷어내고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사람이다.**
 - 21세기 교회가 찾는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유이다.

왜 21세기에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가?

- 환원(복원)과 일치의 개혁가 -

- **캠벨은 21세기 기독교 시대에 필요한 신학적 도구를 제공한다.**
 - 오늘날 교회는 여러 질문에 직면해 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세례·성찬·예배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교단과 전통은 어디까지 권위를 갖는가?” 캠벨은 이 질문들에 대해 성경 중심, 사실 중심, 합리적, 실천적 해답을 제시했다.
 - 캠벨의 성경 해석 원리(상식철학+귀납법)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21세기 교회의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다.

왜 21세기에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가?

- 환원(복원)과 일치의 개혁가 -

- **캠벨은 '일치'와 '환원'을 동시에 추구한 드문 개혁가이다.**
 - 오늘날 교회는 분열을 극복하고 연합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연합은 진리 없는 연합이 될 수 없고, 진리는 배타적 분열로 흐르기 쉽다. 캠벨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었다.
 - 환원(복원): 신약성경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자.
 - 일치(연합): 그 울타리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자.
 - 이 균형은 21세기 교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관점이다.
 - 캠벨은 “진리와 일치”라는 두 축을 붙든 개혁가였다.

왜 21세기에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가?

- 환원(복원)과 일치의 개혁가 -

➤ 캠벨은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사상'을 남겼다.

-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작지만,
 - 세계적으로는 800만 명 규모의 스톤-캠벨 운동
 - 미국 대통령 3명 배출
 - 영국 수상 1명 배출
 - 19세기 미국 개신교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개혁가 중 한 명
 - 미국 대학·출판·선교·교육에 막대한 영향 즉, 개신교 전체에 영향을 준 사상가였다. 사상의 깊이와 시대적 통찰 때문에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을 읽어야 한다.

왜 21세기에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가?

- 환원(복원)과 일치의 개혁가 -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작기 때문에 캠벨을 읽어야 한다.**
 - 작기 때문에 오해 받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작기 때문에 방향을 잃기 쉽다. 그러나 캠벨을 읽으면 다음이 분명해진다.
 -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왜 존재하는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작은 교회일수록 뿌리를 아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다.
 - 왜 21세기에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를 읽어야 하는가? 그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21세기 교회의 문제를 200년 전에 이미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가장 현대적인 개혁가이기 때문이다.

- 19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운동을 ‘**환원운동**’ (Restoration Movement) 혹은 ‘**스톤-캠벨운동**’ (Stone-Campbell Movement)이라고 일컫는다.
- 이 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종교, 언론, 출판, 집회, 탄원의 자유를 보장한 1791년 12월 15일에 비준된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 때문이었다. 그 이전의 기독교는 신·구교 막론하고 모두 국가 또는 시의회 종교였다.
- **알렉산더 캠벨** (Alexander Campbell)은 19세기 전반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이 교회복원운동을 이끈 핵심 인물이었다.

19세기 전반기 종교 개혁(환원)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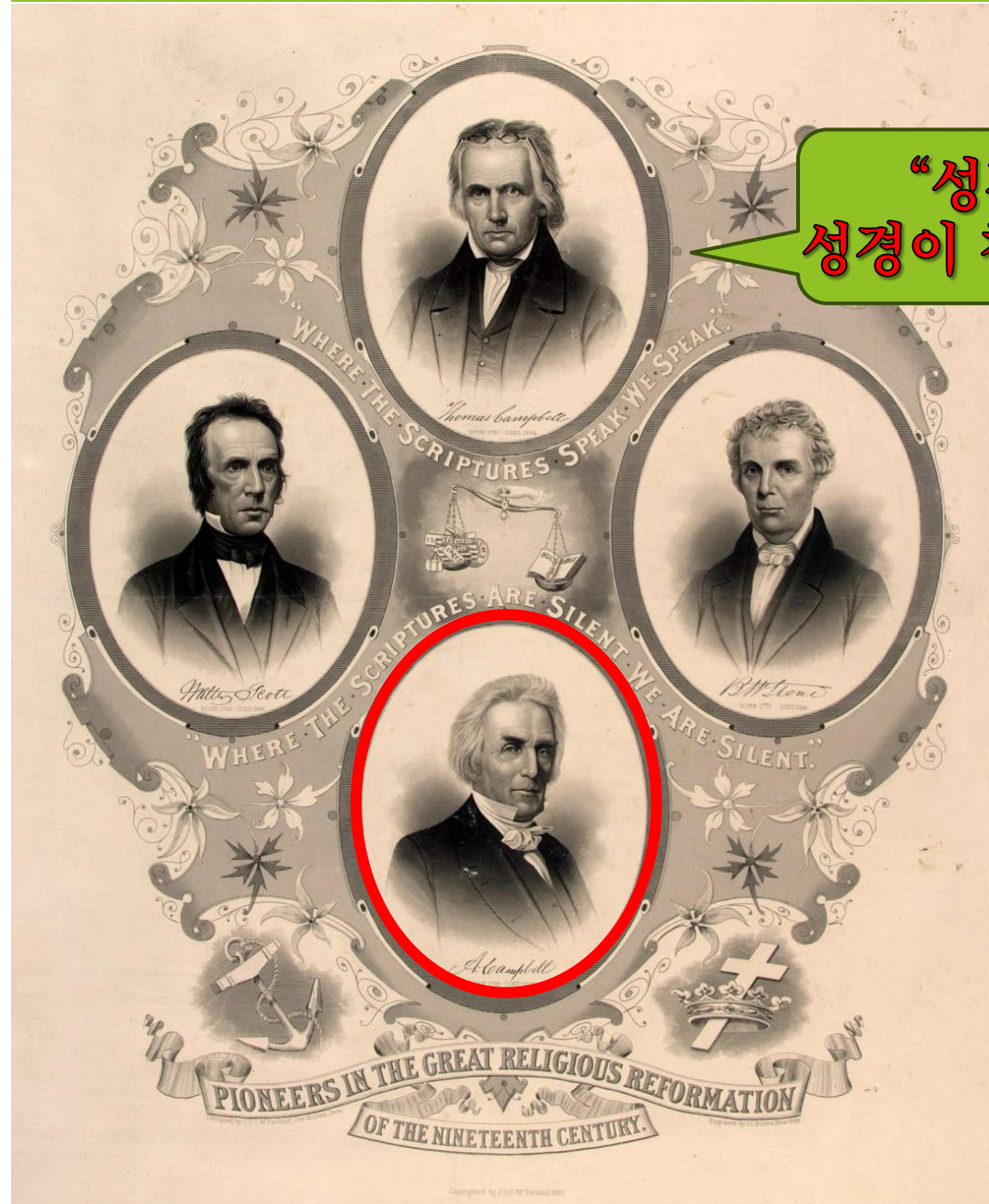
토마스 캠벨
(타머스 캠벨)

윌터 스콧
(윌터 스캇)

알렉산더 캠벨
(앨리그잔더 캠벨)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한다.”

발톤 W. 스톤
(발튼/바튼 W. 스톤)



환원운동가들의 이상, 운동, 방법, 확신

➤ 두 가지 이상

1. **일치**(기독교 연합)
2. **환원**(신약성경 교회의 순수성, 본래성, 그 능력 회복)

➤ 두 가지 운동

1. **그리스도인**(호칭에서 Christians only)
2. **신약성경교회**(신앙과 실천에서)

➤ 두 가지 방법

1.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
2. **본질에 일치, 비 본질에 자유, 모든 일에 사랑**

➤ 환원운동가들의 두 가지 확신

1.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미완성으로 끝난 16세기 종교개혁을 완성시키시려고 환원운동을 전령(Christian Messenger)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

2.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를 자임하면서 그리스도교 일치 운동과 신약성경 교회(사도전통) 회복 운동을 낙관적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펼침

이 운동은 1달러 지폐 뒷면의 두 개의 국장에 담긴 미국의 건국 정신과 맥을 같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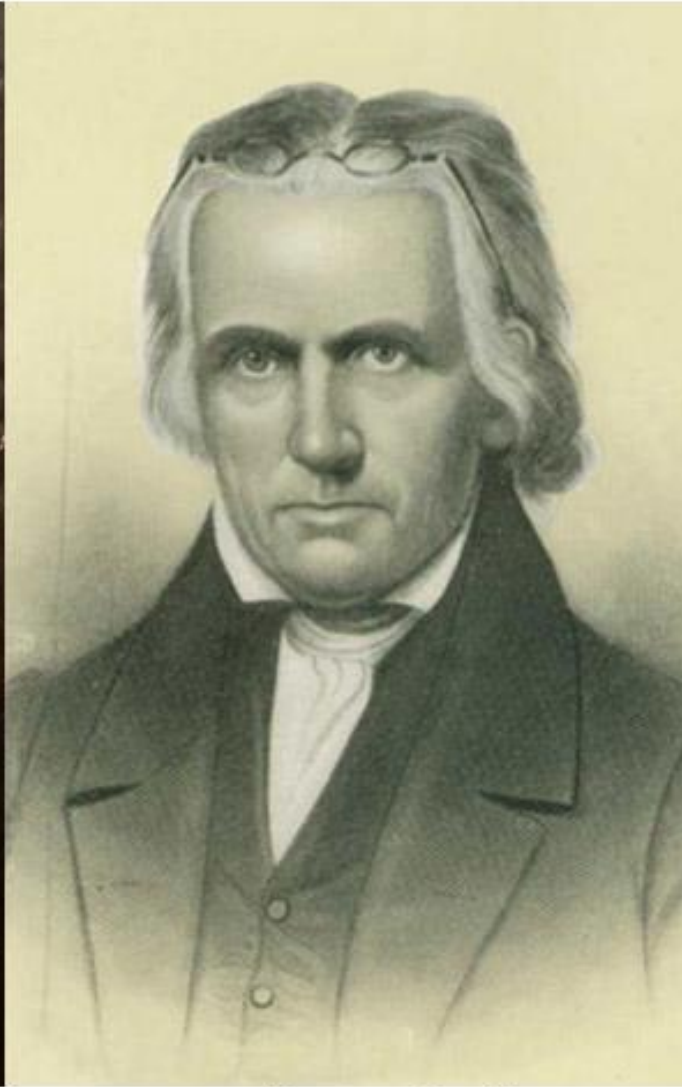


일치: “다수로부터 하나로”(E pluribus unum). *두루마리에 적힌 글
 환원: 그분께서(섭리의 눈) “시대의 새 질서(Novus Ordo Seclorum)”라는 우리의 시작을 승인하신다”(ANNUIT COEPTIS) *피라미드 상하에 적힌 글
 18-19세기 환원운동의 성공도 동시대의 낙관적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비롯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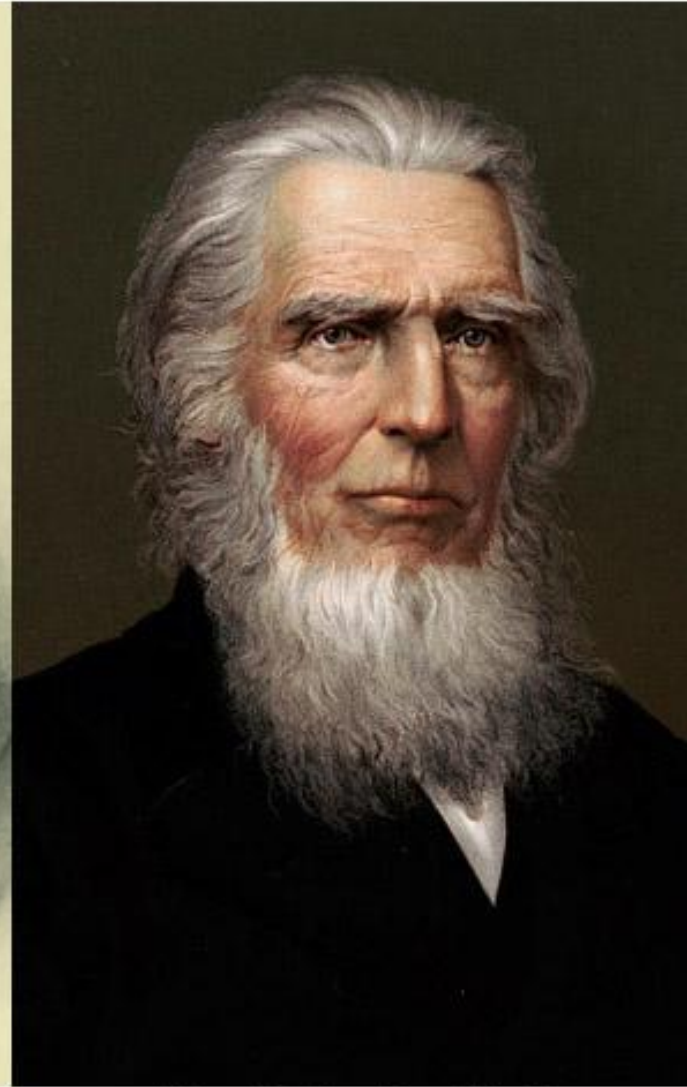
초기 스톤_캠벨 운동의 3대 문서



발톤 W. 스톤
스프링필드 장로회 유언



토마스 캠벨
선언과 제언



알렉산더 캠벨
율법에 관한 설교

Last Will & Testament, &c.

THE PRESBYTERY of SPRINGFIELD, sitting at Caney ridge, in the county of Bourbon, being, through a gracious providence, in more than ordinary bodily health, growing in strength and size daily; and in perfect soundness and composure of mind; but knowing that it is appointed for all delegated bodies once to die: and considering that the life of every such body is very uncertain, do make, and ordain this our last Will and Testament, in manner and form following, viz.

Imprimis. We will, that this body die, be dissolved, and sink into union with the Body of Christ at large; for there is but one body, and one spirit, even as we are called in one hope of our calling.

Item. We will, that our name of distinction, with its Reverend title, be forgotten, that there be but one Lord over God's heritage, and his name one.

Item. We will, that our power of making laws for the government of the church, and executing them by delegated authority, forever cease; that the people may have free course to the Bible, and adopt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B 2

DECLARATION

AND

ADDRESS

OF THE

CHRISTIAN ASSOCIATION

OF

WASHINGTON.

WASHINGTON, (Pa.)

PRINTED BY BROWN & SAMPLE,

AT THE OFFICE OF "THE REPORTER"

1809.

THE SUBSTANCE OF A SERMON,

DELIVERED BEFORE THE

REDSTONE BAPTIST ASSOCIATION,

MET ON CROSS CREEK, BROOKE COUNTY, VIRGINIA,

On the 1st September, 1816.

By ALEXANDER CAMPBELL,

ONE OF THE PASTORS OF THE CHURCH OF BRUSH-RUN,
WASHINGTON COUNTY, PENNS.

"The law was given by Moses, but grace and truth came by Jesus Christ."—JOHN I. 17.

"The law and the prophets were until John, since that time the kingdom of God is preached and every man presseth into it"
LUKE XVI. 16.

PUBLISHED BY REQUEST.

STEUBENVILLE, O.

PRINTED BY JAMES WILSON,

1816.

발톤 스톤의
'스프링필드 장로회 유언서'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

알렉산더 캠벨의
'율법에 관한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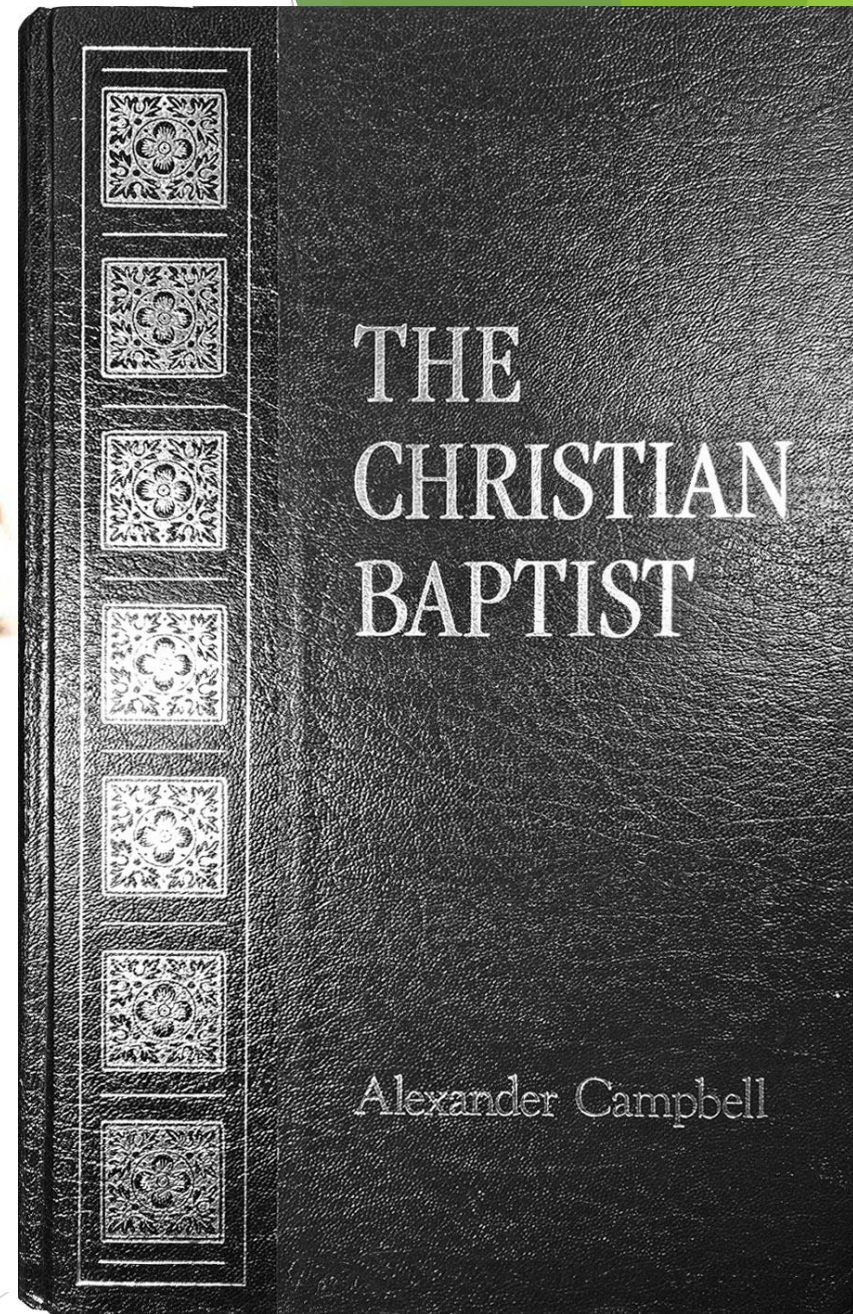
알렉산더 캠벨이
1823년 8월 3일-
1830년 7월 5일
발간한 월간

<그리스도인 침례>
전7권과
1983년에 출판된 합본.

캠벨은 이 잡지를
통해서 "사물들의 고대
질서 회복"과 "원시
복음의 회복" 운동을
펼쳤다.



<그리스도인 침례자>
(1823-30)



알렉산더 캠벨이
1830년 1월

1일부터

사후(1866)

1870년까지 발간한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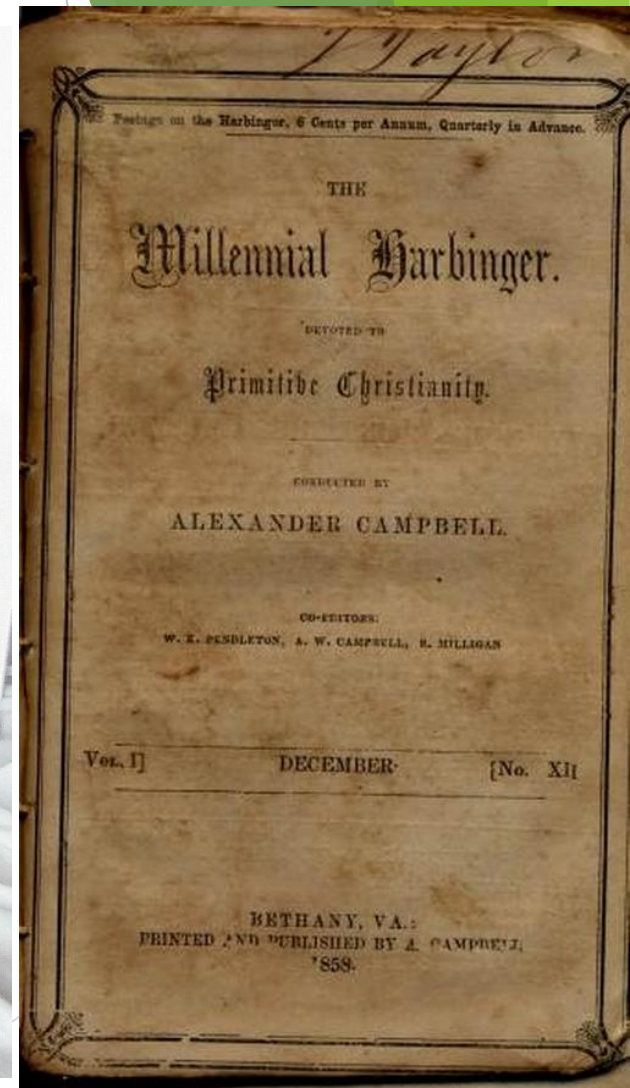
<천년왕국의
선구자>

및

1858년 12월호
표지



〈천년왕국의 선구자〉
(183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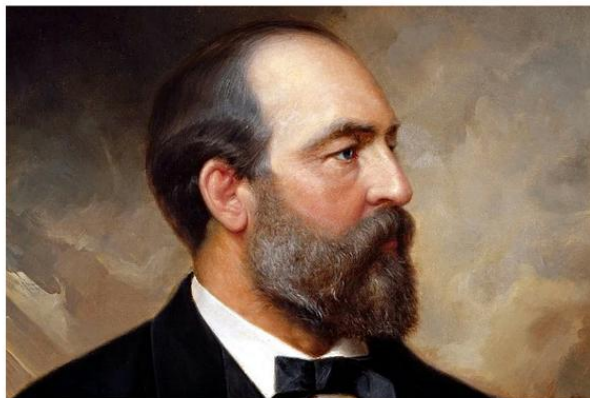


총 41권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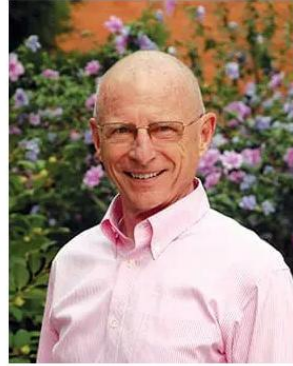
신약성경에 담긴 교회의 순수성과 본래성 및 그 능력을 회복하자는 ‘환원운동’을 3세기(19-21c)에 걸쳐 펼치고 있는 독립교회들의 공동체(association)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개혁운동’(스톤-캠벨운동)은 인도주의, 평등주의,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것으로써 영미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



제20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의 그리스도의교회들의 성명서

1.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들(Christians) 또는 제자들(Disciples)이라고 부릅니다.
2.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3.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스도교 체계의 근본적인 진리로 간주합니다.
4. 우리는 회심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5. 우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6. 우리는 장차있을 악인들의 형벌과 의인들의 상급을 믿습니다.
7. 우리는 신성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8. 우리는 매 주일 주의 만찬의 제정을 지킨다.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주님의 식탁이라고 말합니다.
9.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union)을 간구합니다.
10.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규칙서(discipline)입니다.
11. 우리는 모든 의식들(ordinances)이 사도시대에서처럼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견지합니다.



“우리의 입장: 어떤 종류의 교회인가?”
-리로이 로슨(LeRoy Lawson, 1980) -

1. 그리스도인의 교회(A Christian church)
2. 그리스도의 교회(A church of Christ)
3.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A church seeking unity)
4. 회복을 추구하는 교회(A church seeking to restore)
5. 사도적 교회(An apostolic church)
6. 지성적인 교회(A thinking church)
7. 감동이 있는 교회(A feeling church)
8. 나누는 교회(A sharing church)
9. 자유로운 교회(A free church)
10. 성장하는 교회(A growing church)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세계 대회(World Convention of Churches of Christ)의 전 총무인 린지와 로레인 제이콥스(Lyndsay and Lorriane Jacobs, 뉴질랜드) 부부가 열거한 그리스도의 교회들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Churches of Christ, and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의 주요 특징

1. 기독교 일치에 대한 관심(A concern for Christian Unity)
2. 복음 전파와 기독교 선교에 대한 헌신(A commitment to Evangelism and Christian Mission)
3. 신약성경의 중심성에 대한 강조(An emphasis on the centrality of the New Testament)
4. 간소한 신앙 고백(A simple Confession of Faith)
5. 신자의 침례(Believer's Baptism)
6. 매주 성찬식(Weekly Communion)
7. 성경에 나오는 이름(A Biblical Name)
8. 교회의 자율성(Congregational autonomy)
9. 평신도 지도력(Lay Leadership)
10. 다양성/자유/해방(Diversity/Freedom/Liberty)

스톤-캠벨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인물들

- 미국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1831-81)
- 영국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1863-1945)
- 미국 제36대 대통령 린든 존슨(1908-73)
- 미국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1911-2004)
- 소설 벤허의 작가 루이스 윌리스(1827-1905)
- 장학프로그램 입안자 J. 윌리엄 폴브라이트(1905-95)
- 미국 최대 석유회사 창업자 토마스 W. 필립스(1835-1912)
- 미국 최대 교회 설립자 밥 러셀 등이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출신 미국 대통령들



제임스 가필드

James A. Garfield
제20대 미국 대통령



리든 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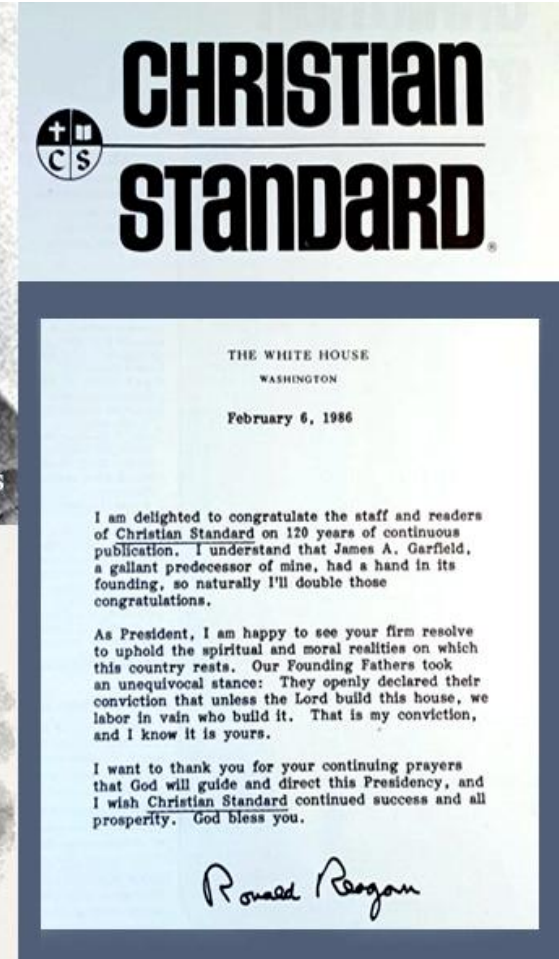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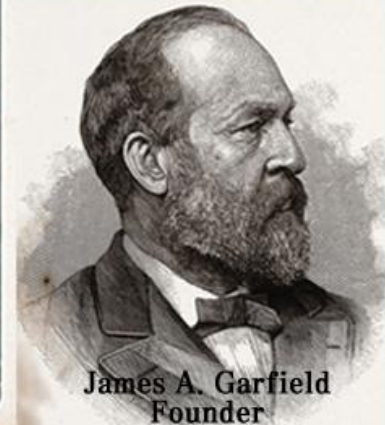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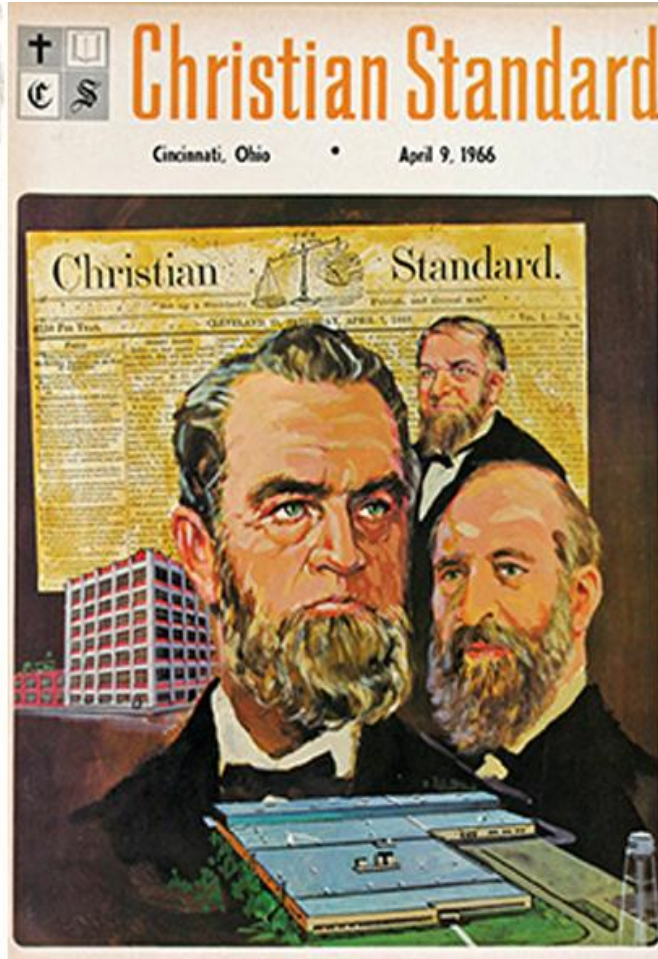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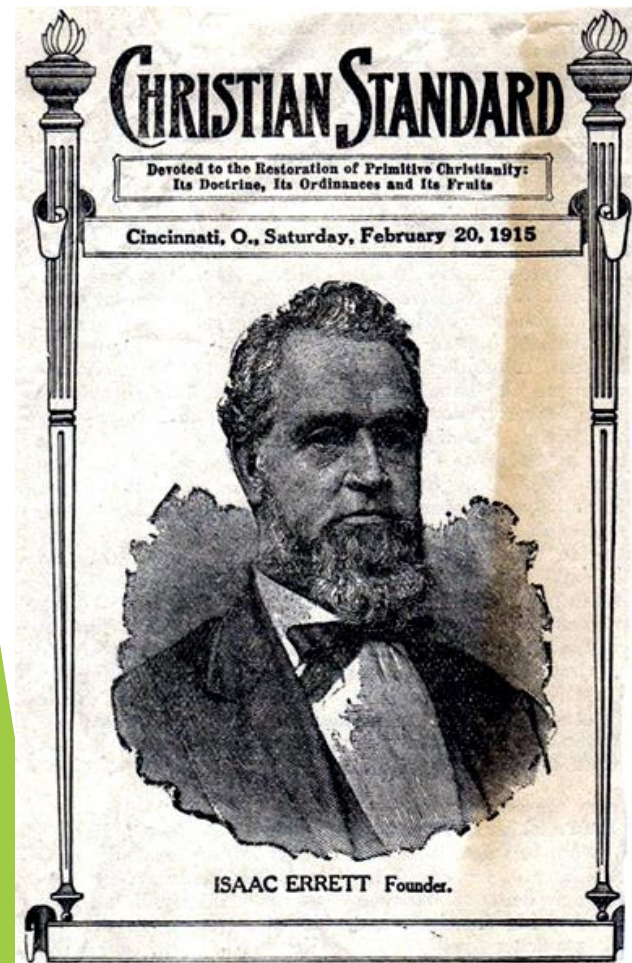
Lyndon B. Johnson
제36대 미국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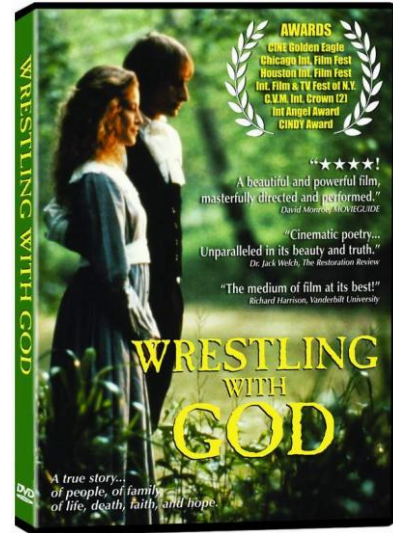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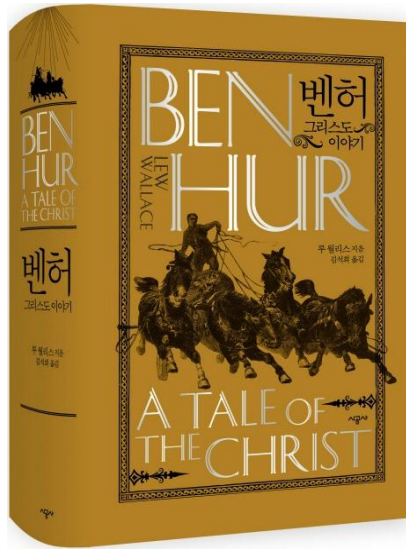
로널드 레이건

Ronald W. Reagan
제40대 미국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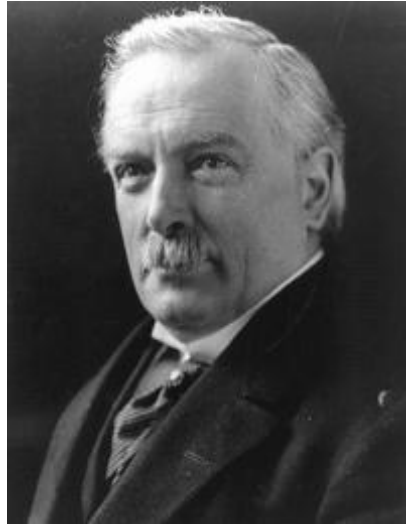
CS (1866) 창간자들: 아이작 에릿, 제임스 가필드, 토마스 필립스



〈그리스도인 표준〉 창간 50주년, 100주년, 120주년
기념호(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120주년 축하 메시지)



- 루이스 월리스(1827-1905, 벤허의 저자)
- 캠벨의 전기 영화(1990)
- 노무라 모토유키 - 천계천 빈민구제 사역



- 데이비드 L. 조지(1863-1945, 전 영국 수상),
- 맥스 루케이도 - 저서 100권 이상 한글로 번역
- 카일 아이들먼 - 저서 10여권이 한글로 번역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초기 목회자들은
상당수가 독립운동가들이었다.

동석기 목사/전도자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 집회 및 만세시위에 참여 독립운동가



Sanki
Hoksei는
함경남도
북청군 '삼
기(三岐,
삼거리) 북
서'란 뜻



S. K. DONG, Sanki Hoksei, Korea
B. D., Garrett Bible Institute



최성진 장로/목회자(1875-미상)

1919년 3월 11일 구성군 남시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여
평안북도 정주군 용포동기독교회 및 문인동기독교회 담임 목회자



평북 구성군 방현그리스도의 교회 장로
최성진(1937년). 평북 정주군 용포동교회
및 문인동교회를 동시에 목회자로 섬겼다.
[출처: Tokyo Christian]

大正八年刑上第三八九號	判決書	平安北道龜城郡方峴面下丹洞 醫生	被告人 崔禮洛	刑事判決原本	四十九年 高等法院	同道同郡同面同洞無職 被告人 梁仁恒	五十年	同道同郡同面同洞集子職 被告人 崔成珍	四十五年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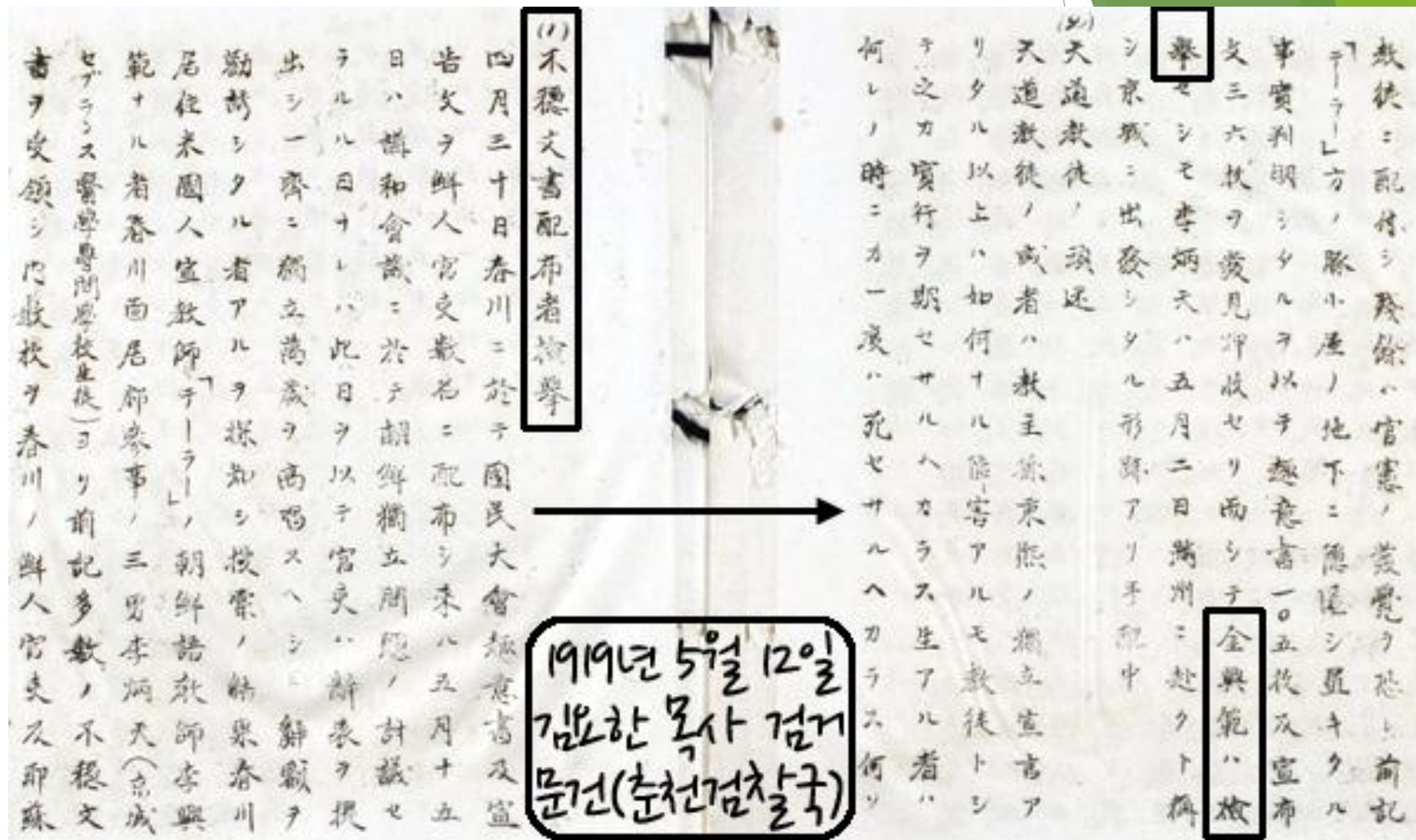
최성진은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리 출신으로, 1919년 당시 45세(1875년생)였으며
과자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는 의생 최예락, 양인항과 함께 구성군 남시에서 약 1
천여 명의 군중을 모아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0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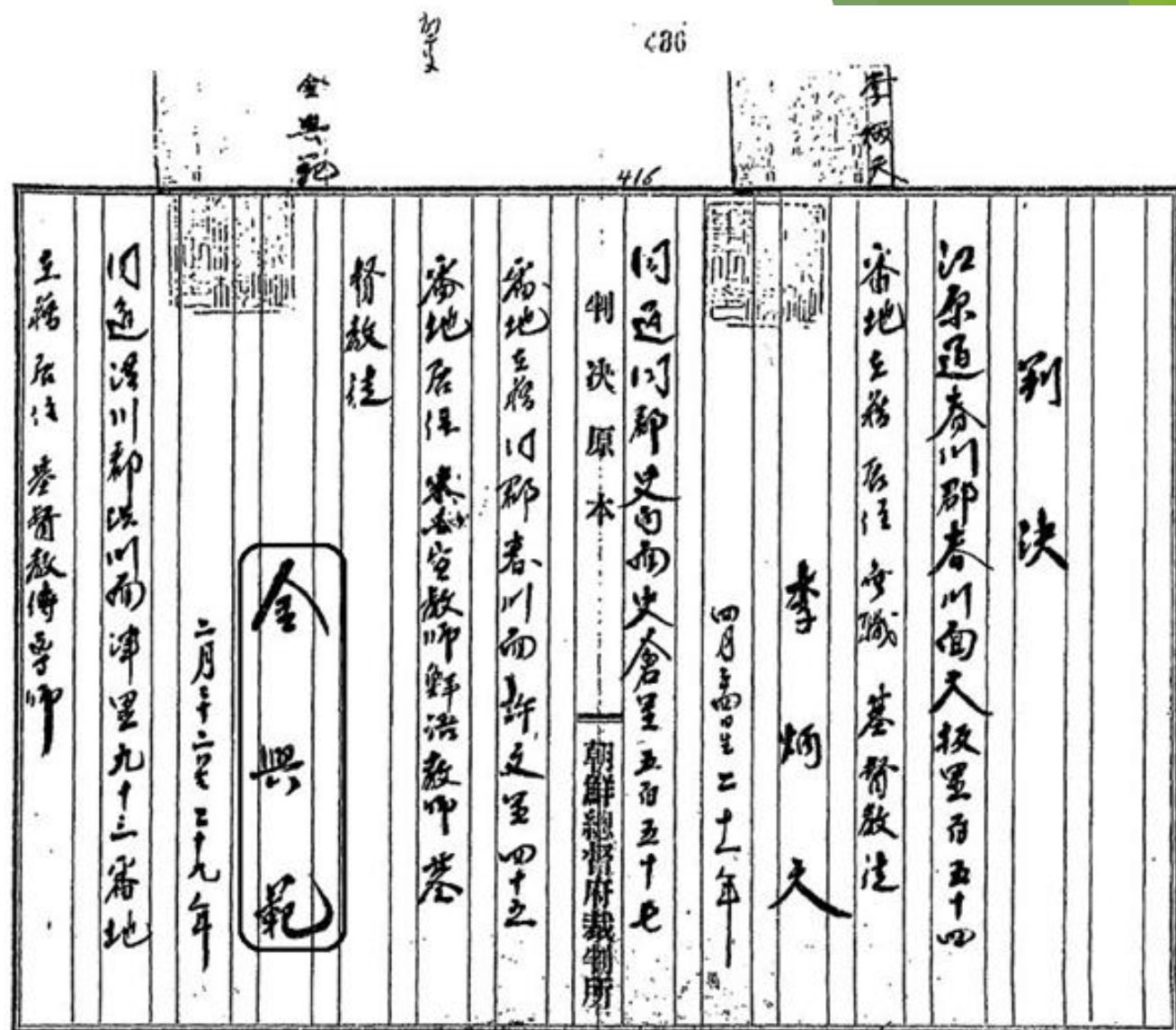
김요한 목사

만세사건 때 체포되어 감옥에서 만세를 외쳤으며, '기독교회' 제3대 포교관리자로서 신사참배 거부로 3차례 투옥





김소한 목사, 1937년
 밀사프스 대학(Millsaps college, 미시시피 주
 잭슨)에서 수리학과를 졸업하였고, 에모리 대학교
 (Emory university, 조지아 주 애틀랜타)
 에서 B.D.(오늘의 M.Div)를 받았다.



이병천(무직, 세브란스전문학교 중), 김소한(흥범)(목사, 조선어 교사)
 원익상 전도사의 조선총독부재판소 경성지방법원 판결원본(1919.06.12)



최상현 목사(1891-공산군에 피남)
연희전문학교 제회 졸업, 연경대학교(수학)
협성신학교 졸업, <신학세계> 편집장인 역임

耶蘇青年會聯合會出席團體及代表者									
地名	代表者	地名	代表者	地名	代表者	地名	代表者	地名	代表者
群山	李奎煥 朴相玉	金海	金聲哲 張昌鉉	開城	許鏞 金澄柱	鳳山	田養駿 安斗燮	新羅	宋濟元
洪城	柳丙秀 金在鎬	三陟	金源大 金夏卿	順天	李觀景 田孝成	宣川	姜基一	小浦	吳錫均
東大門	崔相鉉	貞洞	盧俊鐸	勝洞	洪東德	宋橋	洪東璇	尚洞	尹福榮
仁洞	金漢泳	石橋	趙鎮萬	仁川	申鉉大	蘆池洞	辛永默		
李淳鏐	金成鎬	尹權	金應集	尹炳宜	趙誌鎬	金相滿	姜天錫		

1085

1085

야소교청년연합회 출석단체 및 대표자명단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1921년/대정 10년 5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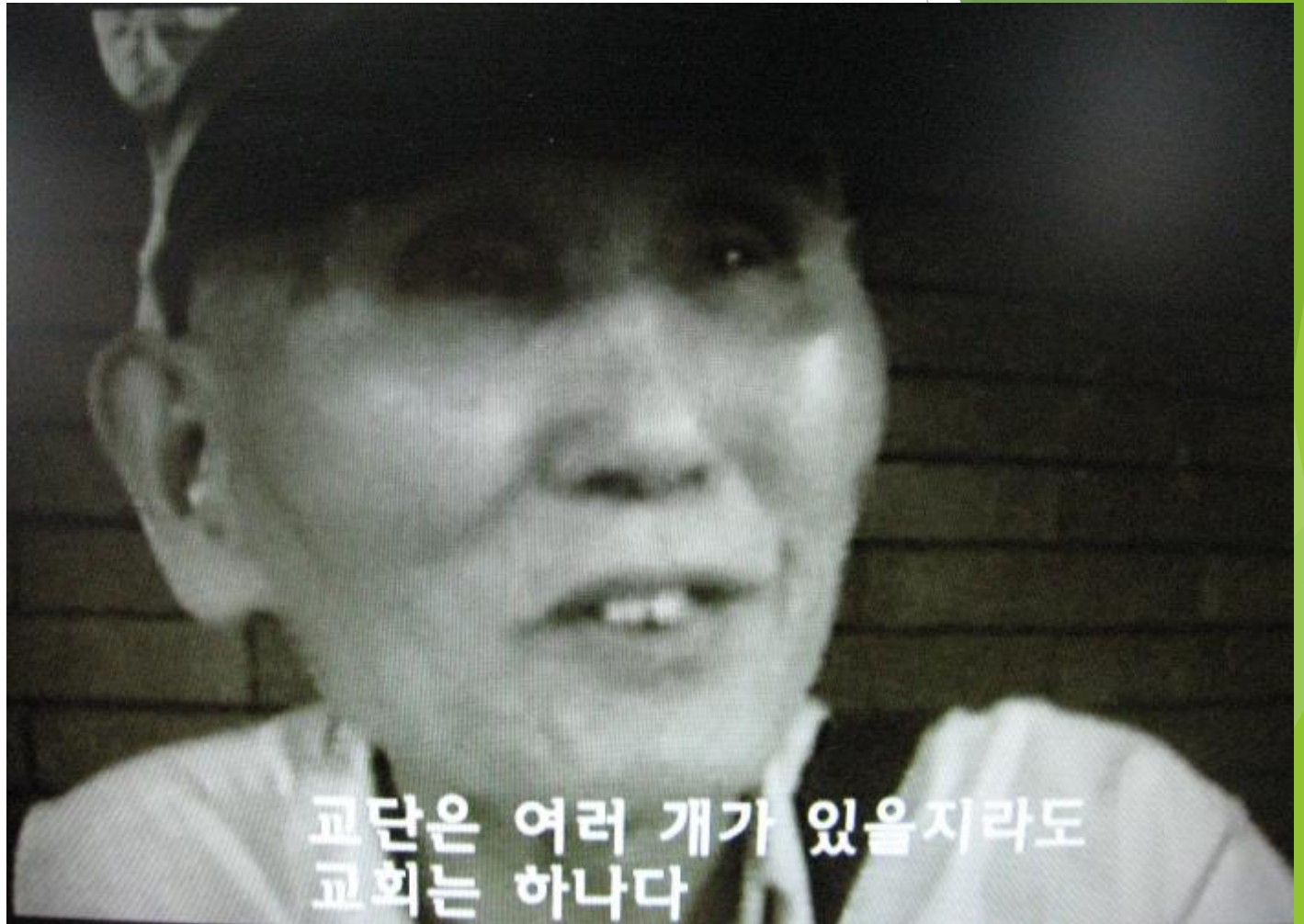
만교 최춘선 목사
(1921-2001.0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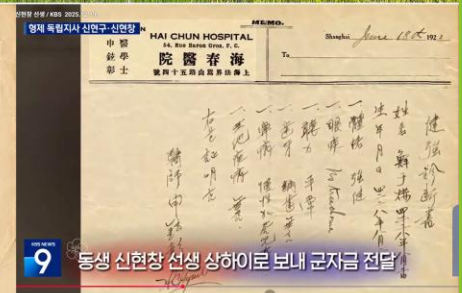
도쿄 와세다 대학 졸업, 광복군 섭외부장,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 목회

최춘선 목사는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 예수 십자가는
생명의 젖 줄기, 평화의
젖 줄기, 십자가 젖
줄기 하나, 교회 하나,
교단은 여러 개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다!**”



신현창
장로
세브란스
의전
졸업(1918,
의사),



대한독립애국단 특파원으로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 전달 및 상해에서 병원 개업 수익금을 독립운동자금으로 제공. 임정의정원 충청도 의원으로 활약. 부강(충북)에서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조직하여 목회자 양성에 힘씀. 충곡리(논산)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

성낙소 목사

1919년 독립만세사건으로
1920년 7월 30일
포교폐지 당함
조선총독부관보 제2438호
2면(대정 9년 9월 25일)



성낙소 목사(1890-1964, 내수동, 필요동교회)
한문수학, 경성구세군사관학교, 경성성서학원,
'동경사목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역임

朝鮮總督府官報 第二四三八號 大正九年九月二十五日	
○大正九年九月二十一日	
釜山、馬山、木浦、晉州及東萊へ出張ヲ命ス 朝鮮總督府事務官	
○彙報	
○官廳事項	
○官吏發着 慶尙北道及忠清南道管内へ出張中ノ朝鮮總督府事務官 慶尙北道及忠清南道管内へ出張中ノ朝鮮總督府事務官 慶尙北道及忠清南道管内へ出張中ノ朝鮮總督府事務官	
○隨習領事交迭 在新義州支那共和國領事館隨習領事 浦任ニ付同地隨習領事張其ノ後任ヲ命セラレ陳隨習領事館ニ在勤ノ旨九月十八日附ヲ以テ京城駐在同國總領事ヨリ	
○司法、警察及監獄 韓島縣士族佐藤秋二ノ申請ニ因リ 日光州地方法院檢察局ニ於テ、東京市四谷區永住町二番地塚岡リ同月十八日京城地方法院檢察局ニ於テ執モ辯護士名簿ノ	
○調查及報告	
○布教屆出 布教規則第二條ニ依リ布教屆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同 屆出月日 所屬教宗派又ハ本寺ノ名稱	同 布教者ノ住所 氏名
五月二十三日 眞宗本願寺派	同 京畿道京城府若草町百七番地 杉山 顯正
七月二十九日 同	同 日野 愛兼
○布教廢止 布教規則第二條ニ依リ布教廢止屆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同 廢止月日 所屬教宗派	同 布教者ノ住所 氏名
大正九年七月三十日 基督教救世軍	同 忠清北道永同郡永同面稽山里 成 樂 紹
同 同	同 アーランド、オットホム
○布教所移轉 布教規則第九條ニ依リ布教所移轉屆ヲ提出シタルモノ左ノ如シ	
同 屆出月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名稱	同 舊布教所所在地 新布教所所在地
六月十日 眞宗本願寺派本願寺新義州布教所	同 平安北道新義州府常 町六丁目二番地
同 同	同 平安北道新義州府常 町六丁目二番地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항일독립운동 및 사회유공)을
수여받고 있는 오현팔 목사(1971년 12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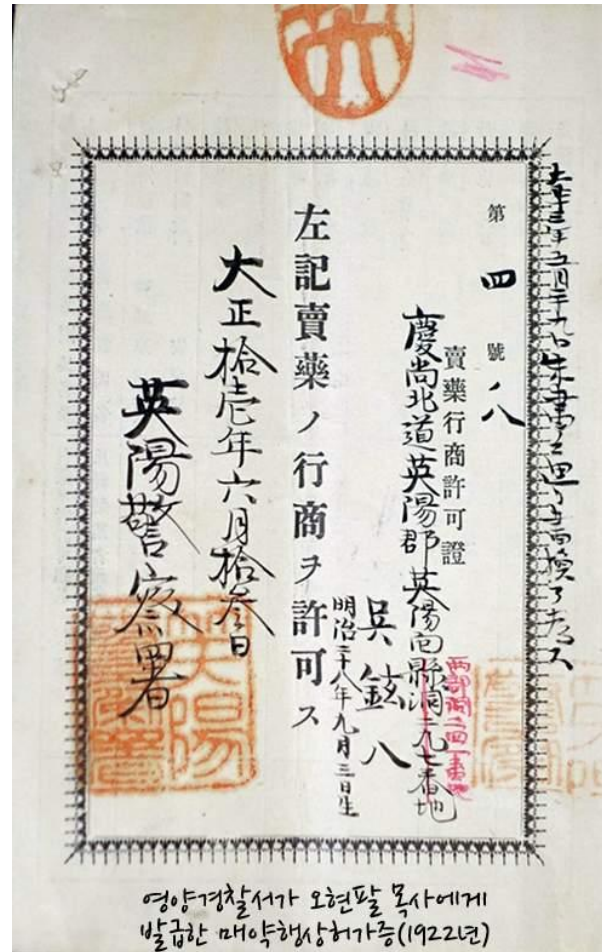
오현팔 목사

- 한의사
- 1923년 연희전문 졸업
- 1913년 9월부터
항일모의 군사훈련
시작.
- 광복단 경북도책 간부
및 영양군책

- 1919년 3월 독립만세운동으로 체포 구금
- 1919년 10월 소총 50여정 구입 및 일제와 총격사건으로 3년형 받음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세워진 독립투사 호암 오현팔 목사 (1895~1972, 영양교회)의 추모비(1982년 10월 9일 제막)



영양경찰서가 오현팔 목사에게 발급한 매약행상허가증(19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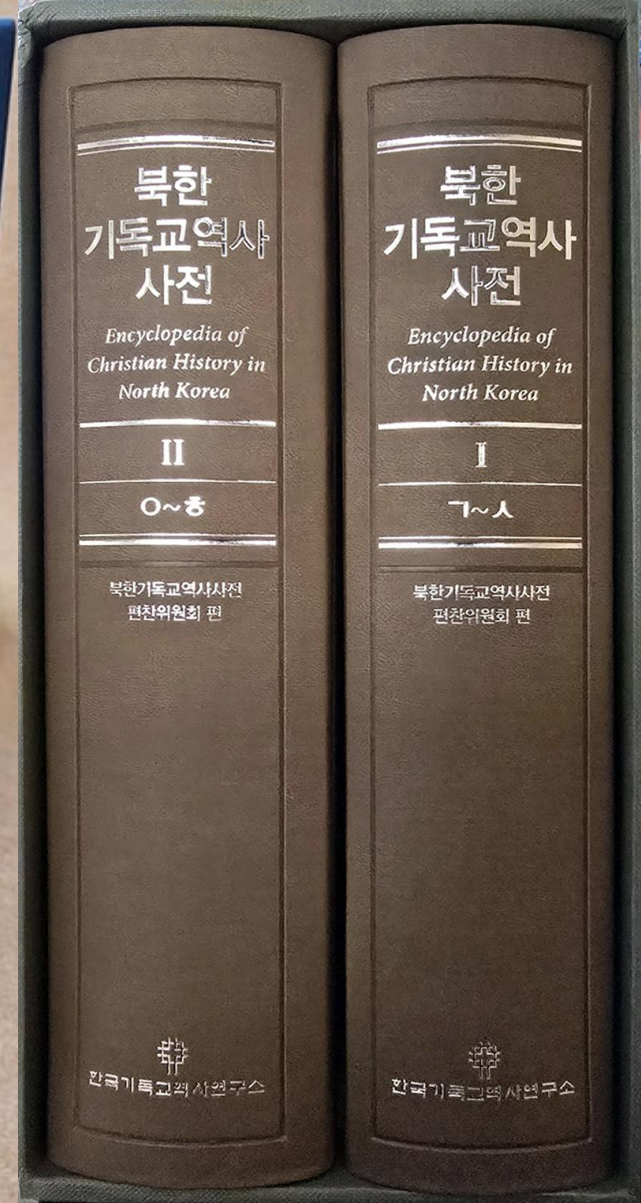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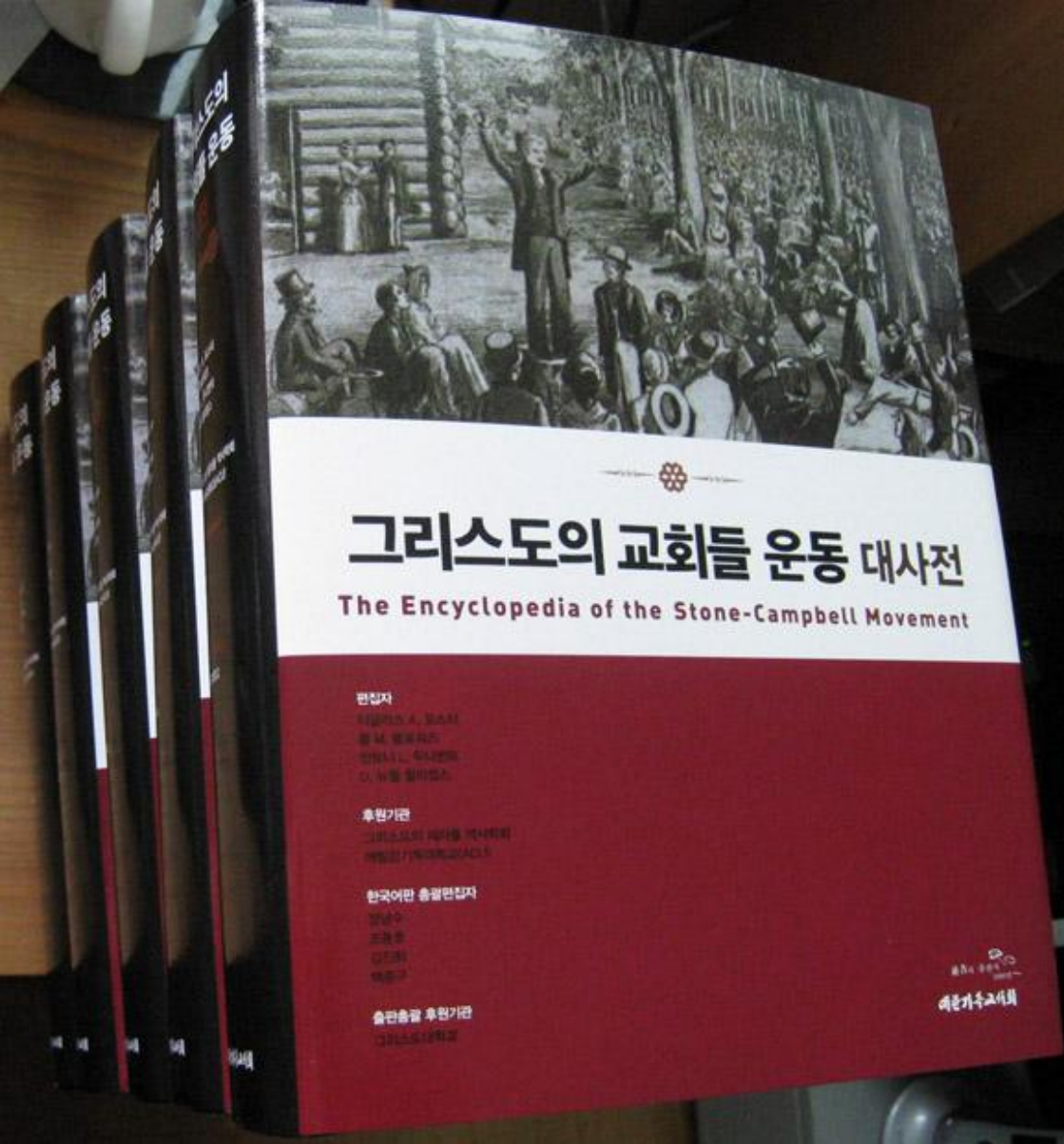
매약행상허가증
(1922년)



1961년 8월 17일 부강 부영초등학교 운동장
좌측부터 이종만 목사, 정인소 박사, 성낙소 목사, 이신 목사, 장성만 목사

정인소 박사

- 국회의원(5.16군사정변 48시간 전)
- **일제 때 128회 투옥**
- 국학대학 교수, 국민대학 교수, 청주대 대학원 원장
- 신생활일보사 이사장,
- 한국 세계어 협회 회장
- **방송설교.**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이야기가 실린 대사전들



우리는 모두 누군가가 진 심자기에 기대어 있다. 제힘이나 능력으로 선 것이 아니다.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일 수 있고, 그들과 동역한 내국인 목회자들일 수 있으며, 이들도 성도 모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성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선배들이 짚어준 심자기에 기대어 원원의 길을 걷고 있다.

잊혀 있던 선배들의 발자취를 되살리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과연 그 일이 누군가의 회생을 요구할 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인가? 잊힌 그대로 두어도 누구도 아쉬운 것이 없고, 어쩌면 발굴하지 않고 묻힌 그대로 두어 영원히 잊혀도 좋게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는가? 이 질문은 필자가 종종 자신에게 던졌던 물음이다. 하물며 목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여럿 없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경탄할 바로는 우리 민족의 현이 몇몇 서글픈 역사에서조차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포란을 뿜어낸 것들이 눈가에 이슬이 맺히게 하는 가슴 사려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바로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이야기를 속에 담긴 감동이고, 한이며, 안타까움이다. 절단 선배들은 또한 선배들은 우리는 모두 선배들이 온 바와 겹겹이 쌓아 올린 지층 위에 발을 딛고 걷고 있다. 우리가 딛고 걷고 있는 지층들 속에 무엇이 매장되어있는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속에 어떤 보물과 고증학적 파편들이 숨어있는지 여럿 궁금하지 않았는가!

조동호 지음

1924-1974

조동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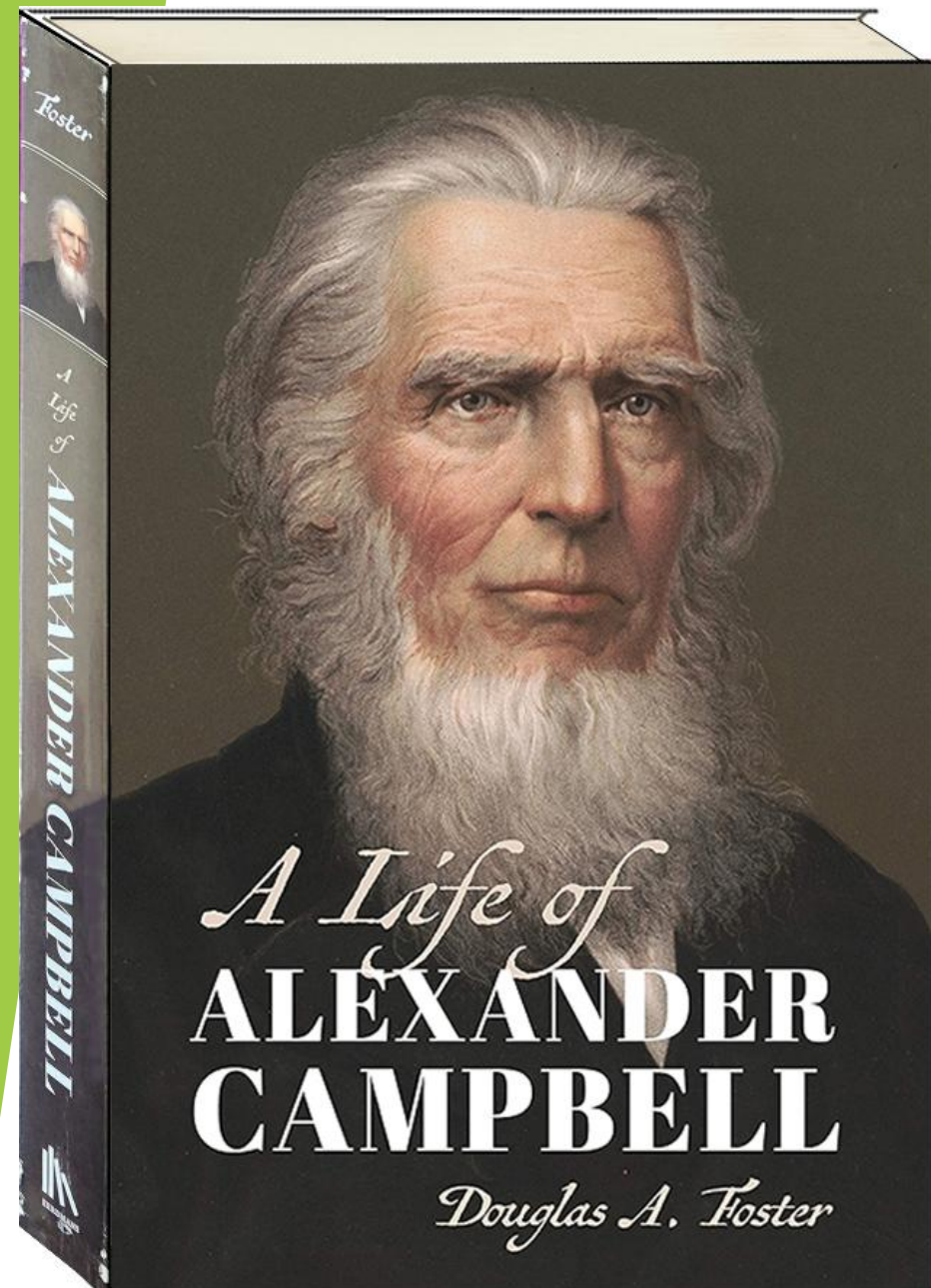
25,000원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초기 50년사 (1924-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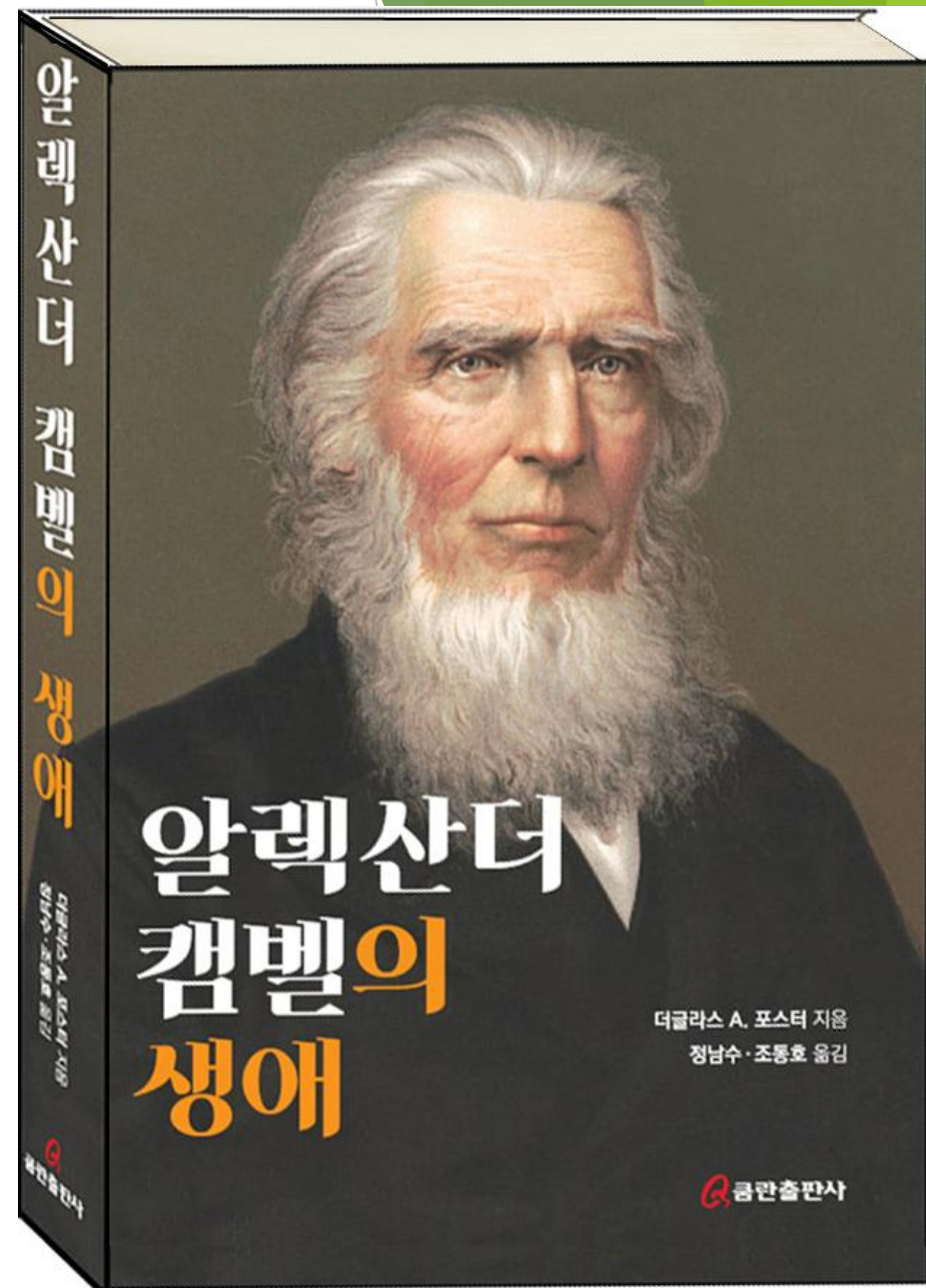
조동호 지음

1924-1974: John T. Chase (1897-1987) / John J. Hill (1913-1988) / Harold Taylor (1884-1976) / Patricia A. Kim (1946-Present) / Richard G. Lash (1928-2001) / Gordon H. Patience (1915-2010)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 서적들



책을 중심으로
살펴본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



제1장 아일랜드에서 알렉산더 캠벨의 형성 • 25

“그가 극도로 겪은 경험은 기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그를 형성했다.”(p. 25)

핵심 요약

- 제1장은 알렉산더가 종교·정치 갈등이 극심한 북아일랜드 얼스터에서 성장했다(1788년 엔트림 출생)는 것, 그 지역은 가톨릭-성공회-장로교(내부 분파 포함)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충돌했던 곳이었다는 것, 이 혼란 속에서 캠벨은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키웠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 스코틀랜드 교회(국가교회, 1560)-신앙고백제정, 종교개혁 내전(1540-70)

└─분리파(Seceders, 1733): 1712년 영국의회에서 통과된 성직 추천령
(Patronage Act)의 부당함에 반대로 시작(Ebenezer Erskine이 주도)

└─공민파(Burghers, 1747): 연합노회(the Associate Synod)

└─새빛파(New Lights, 1799)

└─옛빛파(Old Lights)

└─반공민파(Anti-Burghers, 1747): 총연합노회(the General Associate Synod)

└─도시행정관들의 취임선서 곧 “나는 진정한 종교를 지지하고 보호하겠다”에 반발

└─새빛파(New Lights, 1806): ‘새빛’을 수용해야 한다는 논쟁

└─옛빛파(Old Lights) - 토마스 캠벨 소속

└─반분리파(Anti-Seceders): 국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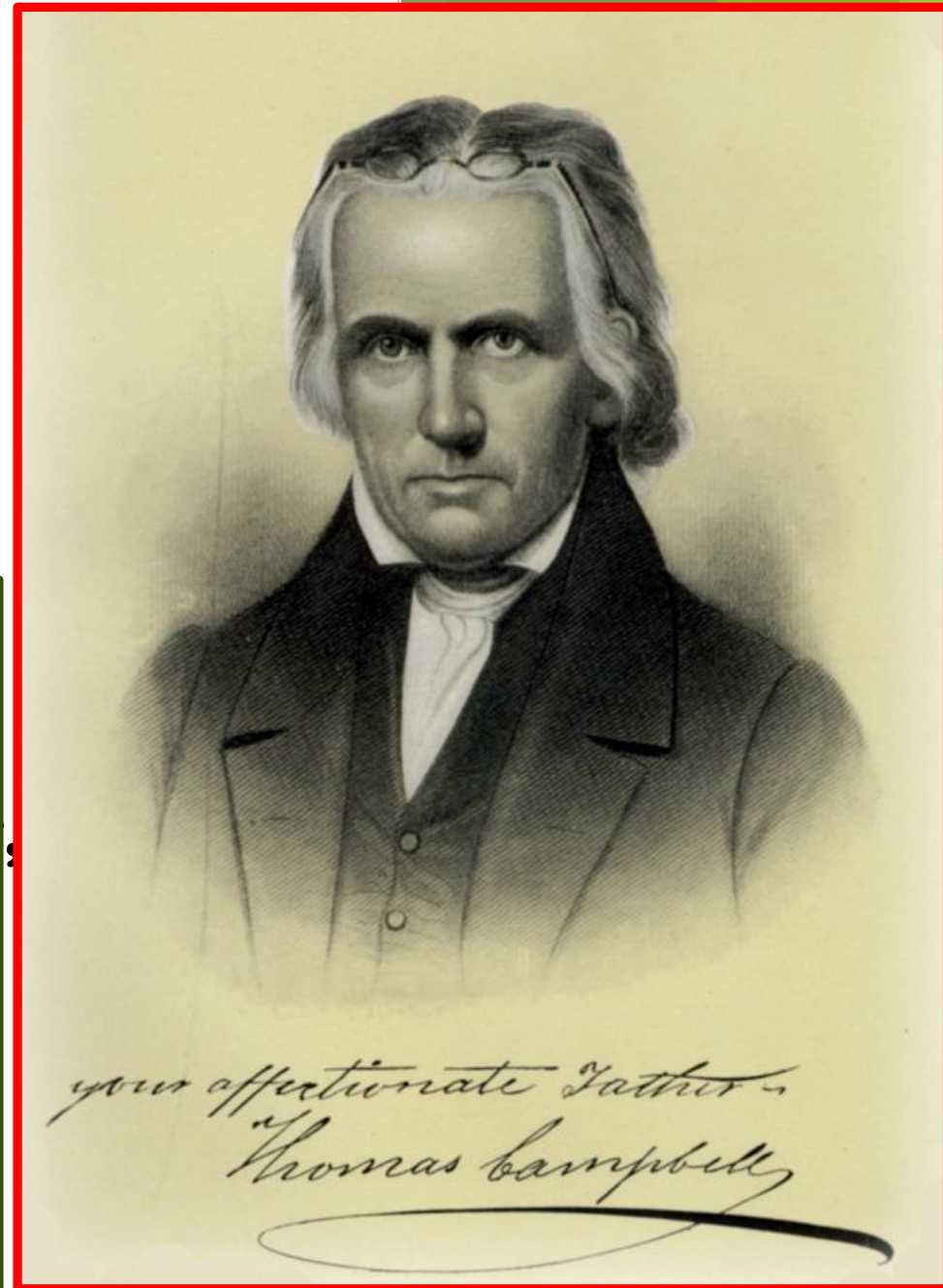
➤ 독립파 교회(분리파·재결합파·새 빛파 그룹 중 일부, 1760-1830)

2. 알렉산더 캠벨의 부친의 형성 • 41

“성서가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한다.” (p. 55)

핵심 요약

- 제2장은 알렉산더의 부친 **토마스 캠벨**이 형성된 **역사·종교적 환경**, 곧 토마스가 마주했던 **폭력·분열의 아일랜드**, **교파갈등**, **교회 일치에의 열망**, 미국에서의 **장로교와의 갈등과 탈퇴** 등이 아들 **알렉산더의 신학과 개혁 운동의 토대**가 된 것을 기술하고 있다.



➤ 18세기 후반 아일랜드의 종교·정치적 폭력성

- 아일랜드에서는 가톨릭-개신교 간의 극심한 갈등, 경제적 변화(아마포 산업 성장), 지주-임차인 갈등이 겹쳐 폭력 사태가 빈번했다.
- 대표적 폭력 단체:
 - 펍오 데이 보이즈-개신교 무장 단체
 - 가톨릭 수호자들-농민중심의 비밀결사(1780년대 후반 등장)
 - 오렌지단-가톨릭 세력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개신교 단체로서 1794년 Battle of the Diamond 직후 창설
- 알렉산더 캠벨은 10세 무렵 '다이아몬드 전투'(1795)와 같은 유혈 충돌을 직접 목격했다. 예: "... 그들은(가톨릭 수호자들) 혀와 오른손의 세 개 손가락을 잘라 냈다."(p. 44)

➤ 토마스 캠벨의 얼스터 복음주의 협의회(ESU) 참여와 갈등

- 토마스는 당시 요구됐던 “진정한 종교(=국가가 인정한 장로교 신앙)를 지지한다”는 서약에 반대한 반공민파 가운데 양심과 개인 신앙에 반대한 반계몽주의 옛빛파에 소속했으나 실제로는 교회 일치·평화·복음주의적 협력을 중시했고, 독립파 교회 인사들과 교제하였다.
- 토마스는 1798년 종교 분열을 줄이기 위해 ESU 설립에 참여했으나 1799년 소속 노회의 반대로 ESU에서의 지도자적 역할을 내려 놓았다.
- 토마스는 얼스터 복음주의 협의회(ESU) 설립을 위해 작성했던 교회 일치 개념을 <선언과 제언>(1809)에 반영하였다.

- 토마스는 공민파와 반공민파의 연합도 적극 추진했으나, 스코틀랜드 총연합노회(GAS)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부친의 이상과 좌절은 이를 목격한 알렉산더에게 깊이 각인되었다.
- 일련의 일들로 토마스는 건강이 악화됐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1807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에서 토마스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강요 반대, 교파 간 교제 확대(열린 멤버십, 열린 성찬식) 등의 이유로 목사직 정직 및 이단성 조사를 받게 되자, 1809년 <선언과 제언>을 발표하며 교단 체제에서 벗어나 교회 일치 운동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 토마스는 자신의 사상에 공감한 이들과 함께 “성서가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한다”는 원칙 아래 워싱턴 그리스도인 협의회를 조직했고, 2년 후 알렉산더가 교회(브러시 런)로 발전시켰다.

3. 알렉산더 캠벨의 정신세계 형성 • 59

“귀납적 방법을 성서에 엄격하게 적용하여… 종교 사상의 위대한 기초로 삼았다.”(p. 70)

핵심 요약

- 제3장은 알렉산더가 **지적·신학적·정신적으로** 형성되는 과정, 곧 가족이 미국으로 가는 배에 승선했으나 배가 난파를 당하여 글래스고에 머물게 되고, 교류했던 **독립파 교회 인사들의 도움으로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학문적 훈련을 받게 된 섭리를 기술하고 있다.
- **이 경험**이 캠벨의 철학·신학·교회관을 형성하는 전환점이 되고, **개혁(스톤-캠벨) 운동**을 이끄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 1808년 미국으로 떠나려던 캠벨 가족은 가족 중 일부가 천연두에 걸려 출발이 지연되었고, 출항 후엔 폭풍으로 배가 스코틀랜드 해안 섬에 정박 중 난파당했으며, 그로 인한 10개월의 지연은 캠벨에게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 알렉산더는 이미 라틴어·헬라어를 공부했고, 존 로크의 책들을 통해 경험론·관용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추가로 스코틀랜드 상식철학(토마스 리드)과 베이컨의 귀납법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성경 해석 방식을 형성하였다.
- 글래스고에서 그레빌 유잉 등 독립파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순수 복음과 교회 회복, 성서의 침묵의 엄격한 관점, 교회와 국가의 분리, 회중의 자율성, 매주 주의 만찬, 그리고 단순한 예배”(p. 66)를 수용하였다.

- 알렉산더는 글래스고에서 **성찬식 입장 토크**를 받았지만, 엄격한 장로교 **성찬 참여를 거부**하였다. 이는 종파주의 거부와 개혁 의지의 상징적 행동으로 해석되었다.

“그는 그 빵과 포도주를 받지 않고 그대로 넘겼다.”(p. 74)

- 미국 도착 후 알렉산더는 미국 사회의 개방성과 안전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미국을 하나님이 섭리로 준비한 개혁의 땅으로 이해 하였다.

- 미국 도착 직후 알렉산더는 부친이 작성한 <선언과 제언>을 읽고 전적으로 동의하며 부친의 개혁운동에 동참하였다.

- 1810년 **첫 설교**(22세)
- 1811년 **브러쉬 런 교회 조직**
- 1812년 **목사 장립**

4. 경력의 시작 • 80

“회개하는 신자들 만이 합법적인 세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p. 88)

핵심 요약

- 제4장은 알렉산더가 설교자, 언론인, 신학자, 개혁 운동의 지도자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침례 수용, 언론 활동, 미국식 설교 방식의 적응, 베다니 공동체 형성, 천년왕국적 개혁 비전은 그가 개혁운동의 기초를 다진 결정적 사건들이었다.

- 알렉산더는 자신의 1810년 첫 설교, “걸림돌을 치우라”(사 57:14)에서 인간 교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언자의 임무는… 장애물은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다.”(p. 80)
- 알렉산더는 부친 토마스와 함께 신약성경만을 교회의 헌법으로 삼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 비판자들은 워싱턴 그리스도인 협의회가 유아세례를 거부한다고 공격했으나, 유아 세례는 교제의 조건이 아니며 관용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자녀들이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하여
구성원들을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p. 82)
- 알렉산더는 1811년(23세) 마거릿 브라운(무남독녀)과 결혼하여
장인의 농장에 거주했고, 훗날 베다니(Bethany)이란 마을로
발전시켰다.

- 첫째 딸 제인 출생 직후, 유아 세례 문제를 다시 연구하며 신자 침례만이 성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회개하는 신자들만이 합법적인 세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p. 88)
- 1812년 6월 12일, 침례교 목사 마티아스 루스에게 침례를 받았다.
(알렉산더 부부, 부모, 자매 제인, 브러쉬 런 교회 교인 2명, 다른 교인 3명은 토마스 캠벨로부터 이미 침례를 받음. pp. 88-89)
- 캠벨은 성경해석에 베이컨의 귀납법과 스코틀랜드 상식철학을 적용하였고, 자신의 신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기도 했다.
- 캠벨 부자는 독립파 교회 전통 속에서 천년왕국 사상을 접했고, 교육·복음 전도·악의 제거를 통해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될 수 있다는 후천년설을 믿었다(p. 93).

5. 고대 복음과 사물들 질서의 시작 • 99

“고대 복음과 사물들의 질서를 식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그의 확신은, 그의 천년왕국의 낙관과 통합되어, 미국을 진정한 개혁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둔 대지로 인식하게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 동안에 그 개혁에 발전과 성과를 내기 위해 주셨던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기를 원했다.”(p. 121)

핵심 요약

- 제5장은 알렉산더의 ‘고대 복음과 사물들의 질서’(ancient gospel and ancient order of things)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고대 복음 회복 운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 “율법에 관한 설교” (1816)는 캠벨이 개혁 운동의 핵심을 최초로 공식화한 사건이었다.

- 핵심 주장: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에서 더 이상 효력이 없고, 도덕법·의식법·사법법의 구분은 “비성서적 인간의 고안”이며, 구약을 근거로 한 유아세레·설교자들에게 바치는 십일조·금식 등의 관행은 폐지되어야 한다.
- 핵심 반응: 캠벨의 “율법에 관한 설교”는 도덕법을 인정한 침례교 필라델피아 신앙고백과 충돌했고, 침례교 지도자들은 캠벨을 이단으로 간주하였다.
- 운동 파장: ‘율법에 관한 설교’에 대한 침례교의 거친 반응은 캠벨이 일으킨 파장 곧 개혁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 두 번의 세례 논쟁: 워커(1820) & 맥칼라(1823)

■ 존 워커와의 토론(1820)

- 워커: 세례는 **할례의 연속**이며, 유아도 세례 받아야 한다.
- 캠벨: 할례와 세례는 목적·형식·효과가 전혀 다르며, “세례가 할례를 대체했다”는 근거가 성경에 없다.

■ 윌리엄 맥칼라와의 토론(1823)

- 캠벨은 이 토론에서 최초로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 마가복음 16:16, 사도행전 2:38, 22:16 등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며 “세례는 구원의 공식적 순간(시간)”이라는 논리를 발전시켰다(pp. 113-14).

Alexander Campbell

A DEBATE ON CHRISTIAN BAPTISM, BETWEEN MR. JOHN WALKER, A MINISTER OF THE SECESSION, AND ALEXANDER CAMPBELL

Held at Mount-Pleasant, on the 19th and 20th June, 1820,
in the Presence of a Very Numerous and Respectable
Congregation; To Which Is Added a Large Appendix

A Debate On Christian Baptism:
Between the Rev. W. L. Maccalla,
a Presbyterian Teacher, and
Alexander Campbell, Held at
Washington, Ky. Commencing
On the 15Th and Terminating
On the 21St Oct. 1823, in the
Presence of a Very Numerous
and Respectable Congre -
Primary Source Edition

William Latta McCalla, Alexander Campbell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에 관한 토론

- 존 워커 (1820.06.19-20, 오하이오 주 마운트 플레전트)
- 윌리엄 맥칼라 (1823.10.15-21, 켄터키 주 워싱턴)

19세기 논쟁들은 모두 미국의 서부개척지에서 일어났다.



뉴올리언스 New Orleans
루이지애나 주

- 알렉산더 캠벨과 월터 스콧은 **헨리 에레트**(〈그리스도인 표준〉의 창립자 아이작의 부친)의 소책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침례가 죄 사함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는데, 정작 **헨리 에레트**는 세례와 죄 사함의 직접적 연결을 부인했다.
- 알렉산더는 1824년(36세), 자신의 월간지 〈**그리스도인 침례자**〉에 “**사물들의 고대 질서의 회복**”(restoration to the ancient order of things)이란 표제로 32차례에 걸쳐 개혁에 관한 글을 실었다.
- 월터 스콧은 1827-1828년 **서부 보류지에서** 단순한 “고대 복음” 곧 “**믿음→회개→침례→죄 사함→성령**”이라는 ‘**다섯 손가락 실행**’(five fingers exercise)을 선포(1827-1828)하여 대 성공을 거뒀다. 그는 침례식에서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위해 침례를 준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 알렉산더 캠벨 운동의 핵심

- 죄 사함을 위한 신자들의 침례
- 고대 복음과 사도적 질서의 회복
- 교파주의와 신조 폐기, 성경만으로 돌아가기
- 그리스도인 일치

➤ 알렉산더 캠벨은 **낙관적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미국이** 하나님이 준비한 개혁의 땅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생애 동안 그 개혁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6. 알렉산더 캠벨의 의제에서 그리스도인 일치의 역할 • 125

“알렉산더의 생각에 이 복원은 - 세상의 개종과 천년왕국의 시작을 가져올 수 있는 일치를 - 진정한 일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중요한 목표는 그리스도인 일치가 아니라, 환원/복원이었다.”(p. 127)

핵심 요약

- 제6장은 알렉산더의 개혁에서 ‘그리스도인 일치’는 목표였고, ‘고대 복음과 질서의 복원’은 그 일치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으며, 그리스도인 일치를 천년왕국에 참가하는 중요한 단계로 인식했다(p. 131)고 기술하고 있다.
- 복원(환원) → 일치 → 세상의 개종 → 천년왕국의 도래

- 알렉산더의 일치 사상은 아일랜드 종교 분열의 트라우마, 부친 토마스 캠벨의 실패한 일치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 토마스는 교회의 분열을 보며 “극악무도하고 치명적인 증오에서 한 걸음 물러난 교회”를 갈망했다(p. 125).
- 캠벨에게 일치는 복원의 결과이지, 복원 없이 일치를 먼저 추구할 수 없는 것이었다.
- 캠벨은 침례를 일치의 필수 조건으로 보았다. 일치에서 양보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성례 제도는 ... 침례이다”(p. 128)라고 말했다.
- 환원(복원)과 일치가 스톤-캠벨운동사에서 긴장 관계에 있었고, 분열의 원인은 복원주의의 엄격함 때문이었다.

7. 더 나은 성경의 탄생 • 138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계몽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개종을 위해, 인간의 능력의 그 어느 다른 수단들보다 신약성서의 명료하고 올바른 번역에 더 많이 의존해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p. 139)

핵심 요약

- 제7장은 알렉산더가 원시 기독교 회복을 위해 더 정확하고 현대적인 **신약성경 번역서**를 만들었지만, 그의 번역과 신학이 불러일으킨 큰 영향력과 강한 논쟁을 기술하고 있다.
- 알렉산더는 ‘*baptizo*’를 ‘세례’가 아닌 ‘침례’로 번역하였고, **비성서적 용어**(예: 삼위일체) 사용을 거부함으로써 큰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1826년 <살아 있는 신탁>(The Living Oracles)이란 이름으로 출판된 알렉산더의 신약성경 번역서는 조지 캠벨, 제임스 맥나이트, 필립 돛드리지의 번역본을 기반으로 삼고, 그리즈바흐의 헬라어 비평본을 사용해 만들어졌다.
- ‘*baptizo*’를 “세례”가 아닌 “침례”로 번역하였다. 알렉산더는 침례를 “물속에 있는 복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하게 강조했다.
- 1901년 ASV가 나오기 전까지 KJV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영어 성경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 캠벨이 성경적 용어만 고집한 점 때문에 장로교 목사 랜디스로부터 유니테리언적 번역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8.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방어자 • 168

“우리는 회의론의 약진이 기독교의 증거들의 취약함이나 부족 때문에서가 아니라, 기독교 성서에 의해 승인되지 않고 성서와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표방하기 때문이라 확신한다.”(p. 177-78)

핵심 요약

- 제8장은 1829년 알렉산더가 무신론 사회개혁가인 로버트 오웬과의 토론을 통해 기독교의 역사적·도덕적 정당성을 강력히 변호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대표적 방어자로 자리 잡게 된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 알렉산더는 오웬을 비롯한 회의론자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의 남용을 공격”(p. 178)하는 것으로 받아드렸다.

구분	로버트 오웬 (회의론자·사회개혁가)	알렉산더 캠벨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변증가)
기본 세계관 종교에 대한 평가	유물론적·환경결정론적 세계관 종교는 “무지에서 비롯된 허구” “종교는 모든 악과 전쟁의 근원”	성경 중심의 유신론적 세계관 기독교는 역사적·예언적 증거를 가진 참된 계시 종교. 남용이 문제
인간 본성 이해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며 자유의지는 환상	인간은 도덕적 선택 능력을 가진 존재. 책임·심판·보상이 의미 있음
악의 원인	종교와 잘못된 사회제도	인간의 죄성 + 왜곡된 종교 체계
해결책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간 재형 성. 종교 폐지→보편적 박애 사회	성경으로 돌아가 원시 기독교 회 복. 본질 회복이 사회 개혁의 길
사회 개혁 방식	공동체주의 실험(뉴라나크·뉴하 모니). 종교 없는 도덕 공동체	기독교적 도덕·자유·책임을 기반 으로 한 사회 개선
천년왕국(미래) 에 대한 관점	종교 없는 도덕 공동체를 통한 지상 낙원	후천년설적 낙관주의: 기독교가 인류를 개선

9. 중요한 두 기관의 창설 • 197

“사람을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애국자가 되게끔 하는 교육을 통해서만...
고대 복음과 사물들의 질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p. 198)

핵심 요약

- 제9장은 알렉산더가 개혁 운동의 교육 기관인 **베다니 대학**을 설립한 것(1841.11)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최초의 전국 조직인 **미국 그리스도인 선교회**(ACMS, 1849.10)를 이끌어 낸 배경을 기술하고 있다.

- 알렉산더는 1820-1830년대에(30대) 토론·저술·선교여행을 통해 전국적 명성을 얻었고, 버지니아 헌법 제정 회의에서 제임스 매디슨, 제임스 먼로, 존 마샬 등과 함께 활동하며 정치적 영향력도 확보했다.
- 그러나 그의 활동의 중심에는 “고대 복음과 질서의 회복”이라는 목표가 있었고, 교육을 이 목표의 핵심 도구로 보았다. 그런 이유로 그는 1841년 11월, 자신의 농장 부지에 성경을 중심에 둔 베다니 대학(Bethany College)을 개교했다.
- 알렉산더는 1840년대 내내 전국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1849년 10월에 창립된 최초의 전국 조직인 미국 그리스도인 선교회(ACMS)의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10. 반(反)캠벨주의 부상 • 219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신조를 신약성경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할 뿐이다 ... 우리는 칼뱅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아리우스주의, 소치니우스주의, 삼위일체주의, 유니테리언주의, 이신론 혹은 종파주의가 아니라 신약성서주의를 옹호한다.”(p. 222)

핵심 요약

- 제10장은 알렉산더의 개혁운동이 성경 중심주의와 침례 교리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쳤고, ‘캠벨주의’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정체성과 방향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 알렉산더 캠벨이 “**고대 복음과 질서**”를 주장하자마자 강한 반발이 일어났는데, 기존 교파들을 신약성경 왜곡자로 비판했기 때문이었다.
- 1820년대 중반부터 침례교 내부에서 캠벨의 가르침을 “**캠벨주의**”, 그의 추종자를 “**캠벨파**”로 부르기 시작했다.
- 알렉산더는 자신들이 인간의 신조가 아닌, 신약성경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며 “**캠벨주의**”가 아니라 “**신약성경주의**”라고 강조했다.
- 1830년대부터 근대까지 ‘캠벨주의’를 비판하는 책·소책자가 다수 출판되었다. *말씀보존학회의 공격도 이들 책자들에 기초한 것임.
- 침례교와 장로교가 알렉산더 캠벨을 공격한 주된 이유는 칼뱅주의 회심론(선택론과 조명론)을 부정했기 때문이었다.

11. 존 토마스와 루넨버그 서신 • 226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조차도, 어떤 한 가지 의무를 그리스도인의 상태나 품성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p. 230)

핵심 요약

- 제11장은 알렉산더 캠벨이 “세례 이해의 정확성보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더 본질적”이라며 존 토마스(의사 출신)의 배타적 재침례주의와 충돌한 ‘루넨버그 서신 논쟁’을 기술하고 있다.

존 토마스는 신자의
침례조차도 침례자와
피침례자가 모두 침례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알고 시행해야
유효한 침례라고 보았고,
그의 삼위일체설 부정,
영혼불멸설과 영원한
지옥 부정, soul sleep과
예수님의 인성 강조
등의 교리는 '여호와의
증인'과 '제칠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등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A. C. Campbell*

Alexander Campbell(1788-1866)의 자필 사인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John Thomas, M. D.

John Thomas(1805-1871)의 자필 사인
의사, Christadelphians의 창시자

➤ **미 침수자에 대한 캠벨의 입장**

- 침례가 중요하지만 '절대 기준'은 아니다
 - 침례를 오해한 사람도 '정직한 신앙'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 외적 의식보다 '내적 헌신'이 더 본질적이다
 - 그러나 '고의적 불순종'은 제외된다
- 위의 입장은 존 토마스의 극단적 재침례주의에 대한 반박 글에서 나온 것이긴 했지만, 캠벨에게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Any Christians Among Protestant Parties"

"The Lunenburg Letter"

by

Alexander Campbell

Millennial Harbinger

1837

12. 캠벨 대 모르몬교 간 갈등 •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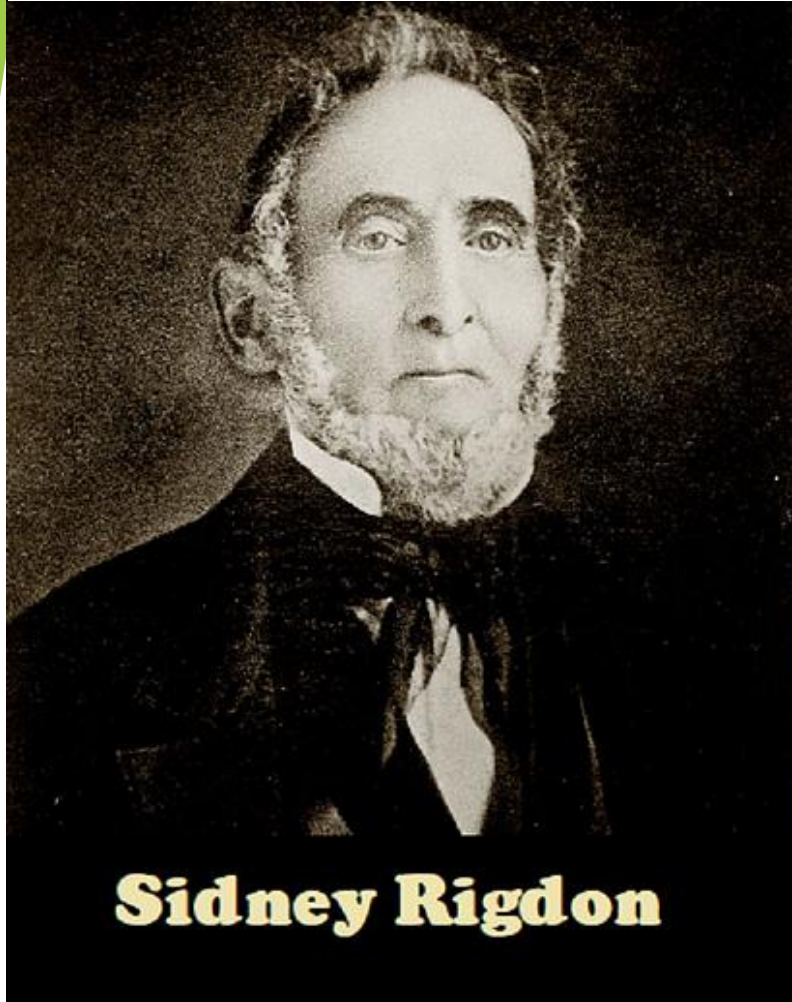
“오하이오주에서 캠벨 운동의 지도자였던 시드니 리그돈이 신간 서적 모르몬경을 읽은 후 1830년에 스미스의 사상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었다.”(p. 244)

핵심 요약

- 제12장은 알렉산더 캠벨과 조셉 스미스의 충돌이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라, ‘초대교회 회복’을 둘러싼 두 신흥 운동의 경쟁이었고, 개혁운동의 참여자 시드니 리그돈의 이탈과 교인 이동이 갈등을 폭발시켰으며, 캠벨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모르몬교가 오히려 크게 성장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 두 운동은 모두 “원시교회 회복”을 주장했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되었고, 캠벨 운동의 영향력 있는 설교자 시드니 리그돈이 1830년 스미스를 지지하며 모르몬교로 전향하면서 오하이오에서 리그돈의 추종자 몇몇 목회자와 수천 명의 교인이 모르몬교로 이동했다.
- 캠벨은 1831년 “망상”(Delusions, 최초의 모르몬교 비판서)을 통해 모르몬경이 날조된 책이라고 비판했다.
- 공통점: 원시교회 회복, 침례 중시, 미국을 신성한 땅으로 보는 관점.
*모르몬교는 원시교회 모델을 신·구약 모두에서 찾음.
- 차이점: 모르몬교가 선지자적 권위, 아론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직, 사도직을 포함한 교회조직(제1회장단 3인회, 12사도 정원회, 70인 정원회), 계시의 지속성, 후기성도들의 시온(미국) 집결의 복원을 주장한 반면, 캠벨의 개혁교회들은 신약교회 복원을 주장했다(p. 252).

캠벨 개혁운동가들 중에 모르몬교에 참여한 프레더릭 윌리엄즈는 의사였고, 나머지는 모두 교역자들이었다. 리그돈을 제외한 대다수가 많은 수의 부인을 두었다.



Joseph Smith, Jr

● 는 캠벨의 개혁운동의 참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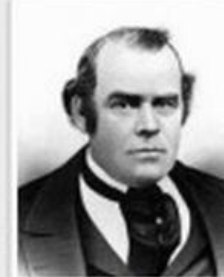
Brigham Young



Heber C. Kimball



Orson Hy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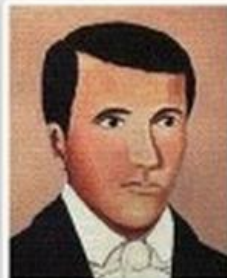
Parley P. Pratt



Frederick Williams



Orson Pratt



John E.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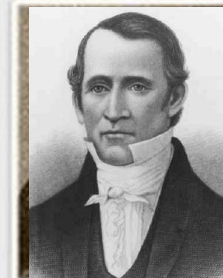
John Tay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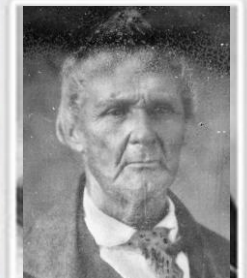
George A. Smith



Wilford Woodruff



Edward Partridge



Isaac Morley

●는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운동의 참여자들

목사



SIDNEY RIGDON
1833-1844



제1보좌

의사



FREDERICK G. WILLIAMS
1833-1837



제2보좌



JOSEPH SMITH
1830-1844
THE FIRST PRESIDENCY
1830-1837

최초의 제1회장단

13. 캠벨과 장로교 - 두 번째 갈등 • 254

“그러나 캠벨은 자신이 세례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부인 하였다. ... ‘나는 어떤 경우에도 세례를 구원에 절대적 본질로 삼지 않는다.’ 라이스는 캠벨이 일부 사람들이 침례 없이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수긍한 것은 그가 어떤 성인도 회개와 침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인쇄물을 통해 말한 것과 모순된다고 반박하였다.”(p. 261)

핵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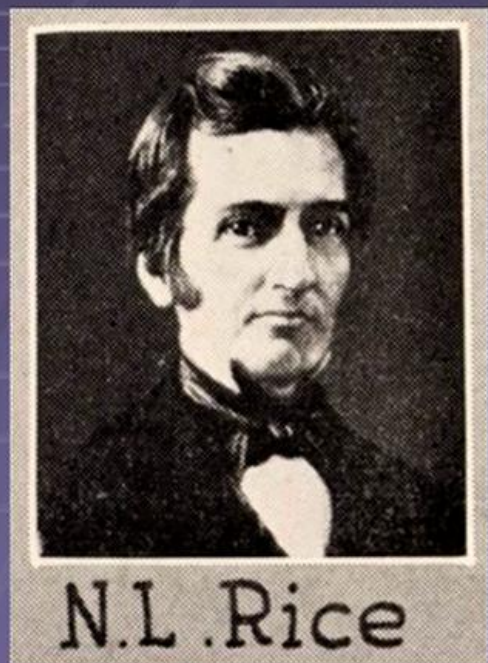
- 제13장은 캠벨 vs 라이스 토론이 표면적으로는 **세례·성령·신조**에 **관한 논쟁**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두 교파 사이의 경쟁과 감정이 최악으로 치달은 사건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 1830~40년대,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운동은 켄터키에서 장로교와 강하게 경쟁했다.
- 라이스와의 토론은 1843년 11월 15일-12월 2일(16일간), 켄터키 렉싱턴에서 매일 4시간씩 진행되었다. 출판된 책은 총 912쪽이며, 그 가운데 562쪽 분량이 세례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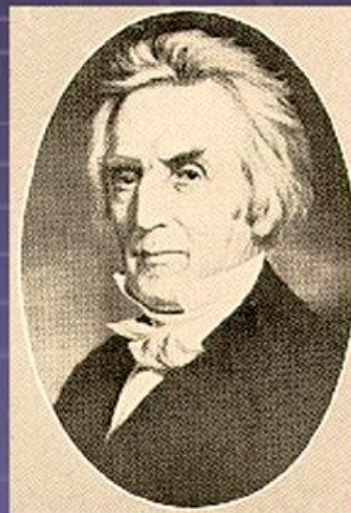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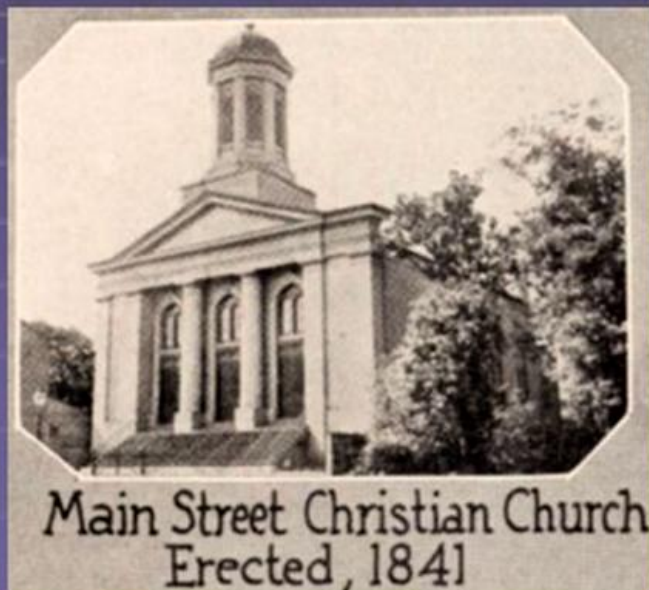
- 주요 토론

- 세례 방식(침례 vs 유아세례·뿌림) - 신자 침례만이 유효한가?
- 세례의 의미(죄 사함과 의 관계)
- 세례 집례자의 자격 - 누가 세례를 집례할 수 있는가
- 성령의 역할(회심과 성화에서)
- 신조(교리 체계)의 정당성

1843 Campbell-Rice Debate, Campbell's Last Public Debate Lasted Sixteen Days



1843 - 36
Years Old



1843 - 55
Years Old

A Debate Between Rev. A. Campbell and Rev. N. L. Rice

On the Action, Subject, Design and
Administrator of Christian Baptism;
Also, On the Character of Spiritual
Influence in Conversion and
Sanctification, and On the Expediency
and Tendency of Ecclesiasti



NATHAN LEWIS RICE, MARCUS TULLIUS
CICERO GOULD, ALEXANDER CAMPBELL, A
EUCLID DRAPIER

알렉산더 캠벨 대對 나단 라이스 공개토론이 1843년 11월 15일(수)부터 12월 2일(토)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렉싱턴 소재 Main Street Christian Church에서 16일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속기된 공개토론 내용은 책(902쪽)으로 출판되었다. 당시 캠벨은 55세, 라이스는 36세였다.

14. 침례교도들과 격렬한 충돌 • 270

“캠벨 개혁가들과 침례교도들의 세계관과 신학이 매우 유사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경쟁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p. 271-72)

핵심 요약

- 제14장은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운동이 침례교 뿌리에서 시작됐고, 성서중심, 회중교회, 신자 침례와 같은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 이해의 차이가 양측을 갈라 놓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 침례교(칼뱅주의)가 문제 삼은 캠벨의 가르침:

- 침례와 구원의 관계(침례 중생 논쟁)
- 성령의 직접 역사(조명론) 부정
- 간단한 신앙고백만으로 침례 허용(침례교는 회심 증거를 제시해야)
- 신조(교리 체계) 거부(“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

➤ 공식적인 분열(1829~1830):

- 여러 침례교 협의회들에서 캠벨과 그의 추종자들을 파문
- 그 결과 내부에서 캠벨파 vs 반 캠벨파 대립 격화

➤ 1850년대: 갈등의 절정

- 제임스 로빈슨 그레이브스: 《캠벨주의 폭로》 저술
 - 캠벨파 침례는 무효
 - 캠벨 운동은 참된 교회가 아님
 - 침례교만이 참된 교회라는 전승설에 기초한 지계석주의 강조

➤ 1850년대: 갈등의 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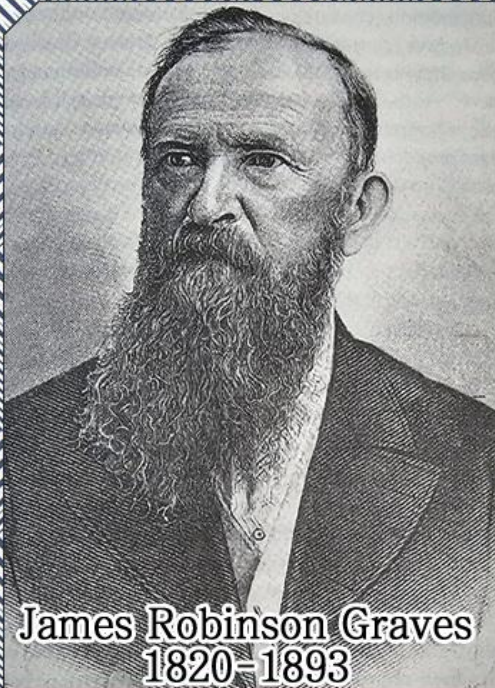
- 제레마리아 벨 제터의 비판: <캠벨주의 검토> 저술
 - 캠벨의 개혁운동을 아래의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
 - 성령의 직접 역사 부정
 - 침례와 중생 동일시
 - 교회와 신앙 체험 경시

➤ 캠벨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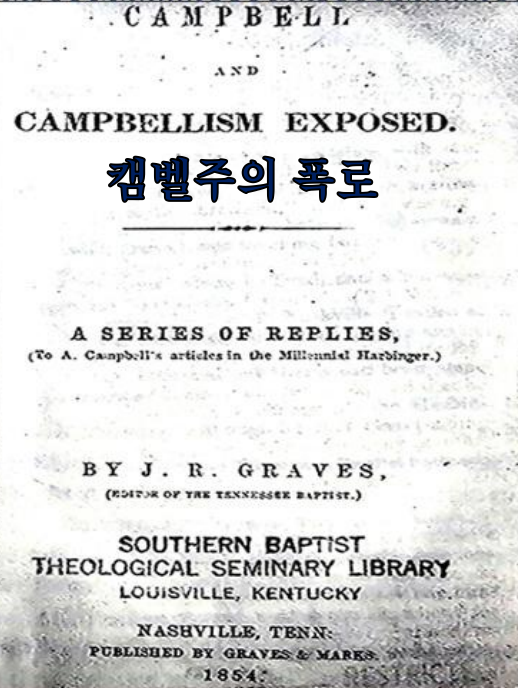
- 침례는 중요하지만 기계적 구원 조건 아님
- 성경 중심 신앙 회복 주장

➤ 역사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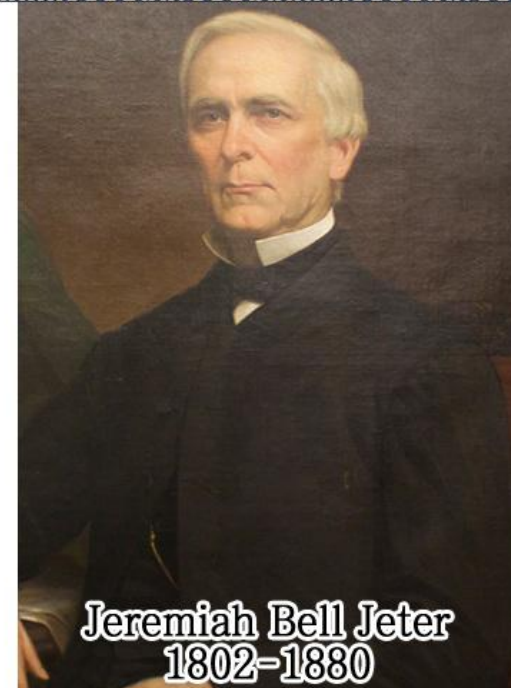
- “누가 참된 교회인가”에 대한 정체성 싸움
- 침례교: 교회 전통과 정통성 강조
- 캠벨파: 성경으로의 회복과 단순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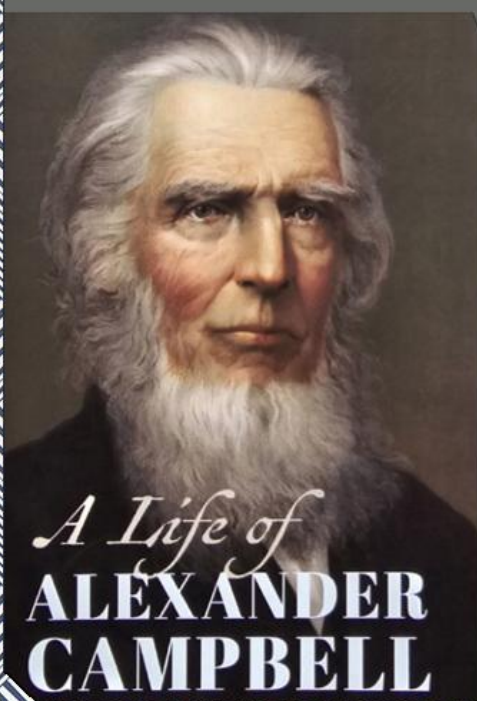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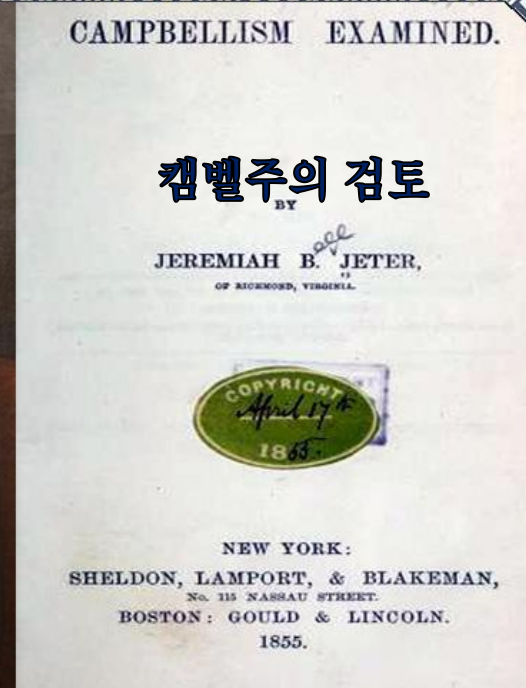
James Robinson Graves
1820-18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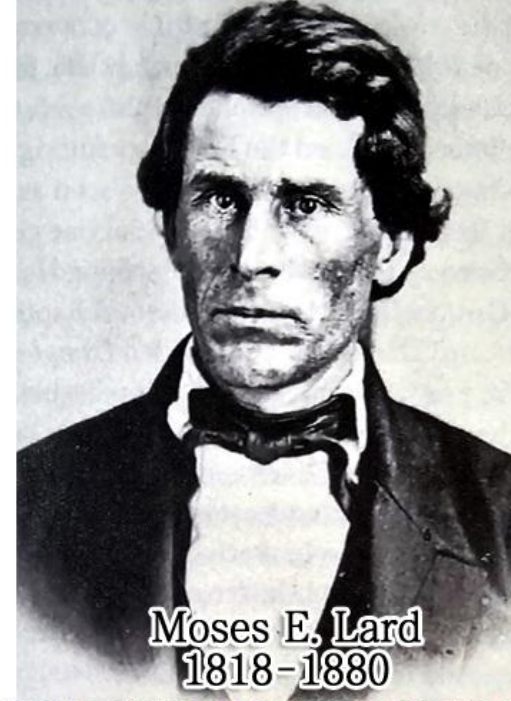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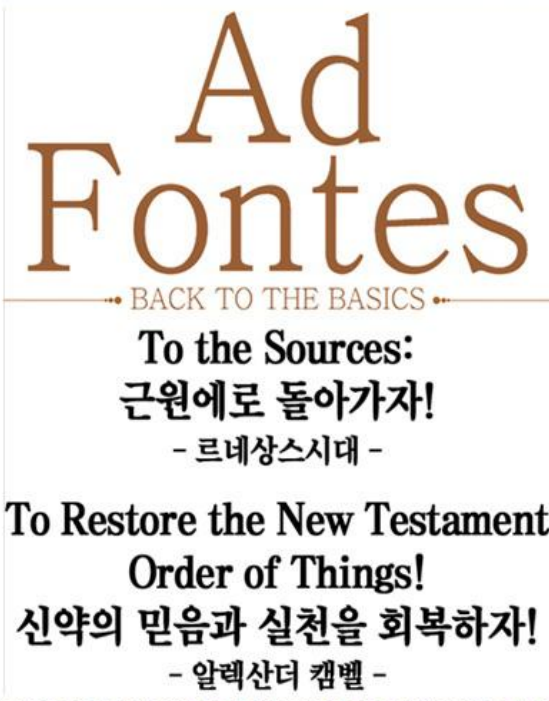
침례교인들
대
알렉산더
캠벨과
개혁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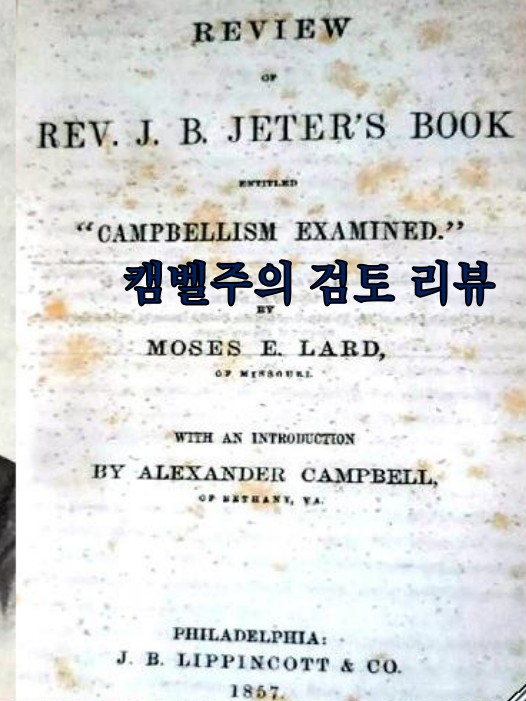
Jeremiah Bell Jeter
1802-1880



A Life of
**ALEXANDER
CAMPBELL**



Moses E. Lard
1818-1880



15. 월터 스콧과의 충돌 • 293

“그들은 앞으로 다년간 캠벨 개혁운동의 형성과 확장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는 자신이 그 운동을 성공시킨 주요 촉매자란 것을 부각시키려 하였다.”(p. 294)

핵심 요약

- 제15장은 알렉산더 캠벨과 월터 스콧의 갈등이 ‘누가 고대 복음을 회복했는가’라는 공로 경쟁에서 비롯됐지만, 결국 노년에는 화해와 상호 존중으로 마무리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 스콧은 자신이 1827년에 “고대 복음”을 회복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캠벨은 스콧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복음을 회복했다”는 주장을 심각한 문제로 보았고, 스콧이 침례식에서 “죄 사함을 위해 침례를 베푼다”고 의도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비판했다. 반대로 스콧은 캠벨이 자신의 공로를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두 사람은 각자의 잡지(캠벨: *Millennial Harbinger*, 스콧: *Evangelist*)를 통해 서로를 비판했다.
- 노년에는 화해와 상호 존중으로 마무리되었다. 1861년 스콧이 사망하자 캠벨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 개혁운동의 주도권과 공로를 둘러싼 긴장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핵심이었다.

➤ 동역자들인 월터 스콧 및 발톤 스톤과의 갈등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A. Campbell*

Alexander Campbell(1788-1866)의 자필 사인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The Lord bless your labours
Walter Scott*

Walter Scott(1796-1861)의 자필 사인
"The Lord bless your labours."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A. Campbell*

Alexander Campbell(1788-1866)의 자필 사인
"Affectionately and truly yours."



*Farewell
B. Stone*

Barton W. Stone(1772-1844)의 자필 사인
"Farewell"

- 월터 스콧은 죄사함을 위한 침례를 누가 먼저 공개적으로 반포했는가를 놓고 캠벨과 우위권을 다퉈고, '회복된 복음'이란 주제와 교회 명칭 (Disciples vs. Christian)을 놓고 캠벨과 다퉈다.
- 스톤은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기기 전에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입장이었다.

16. 알렉산더 캠벨과 발톤 W. 스톤 • 319

“그러나 실제로 알렉산더 캠벨과 발톤 스톤의 관계는 기껏해야 항상 불안했고, 최악의 경우 그 운동의 중심과 정신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상징했다.” (p. 319)

핵심 요약

- 제16장은 알렉산더 캠벨과 발톤 W. 스톤의 관계가 ‘협력과 긴장’이라는 두 축에서 전개됐으며, 두 사람의 개혁운동이 1832년 1월 1일부터 연합됐지만, 두 사람 사이의 신학적 차이와 상호 불신은 끝까지 남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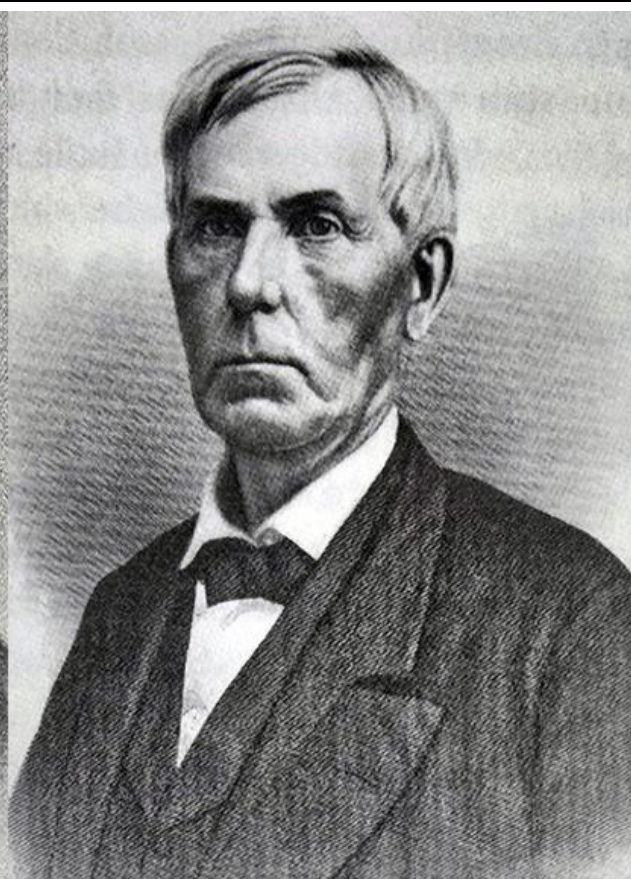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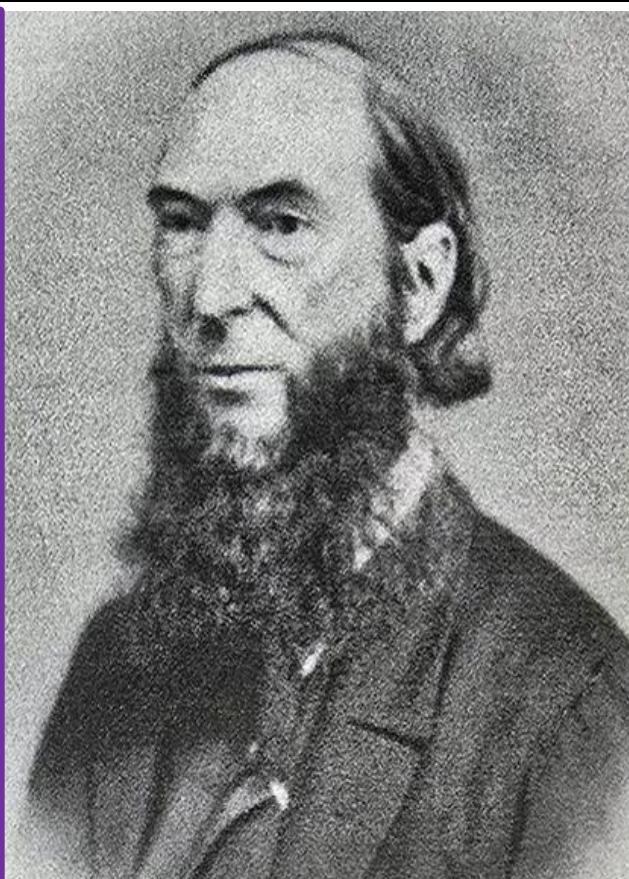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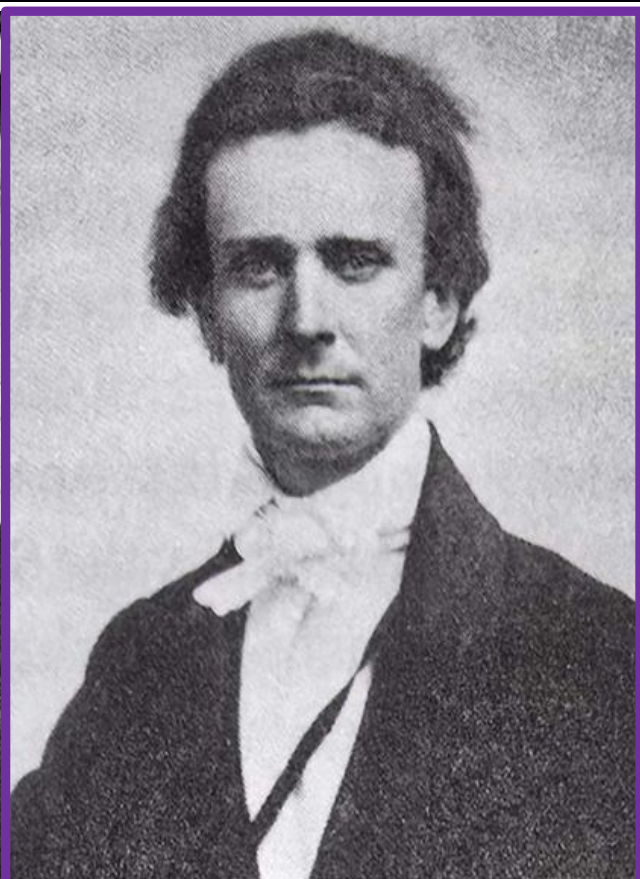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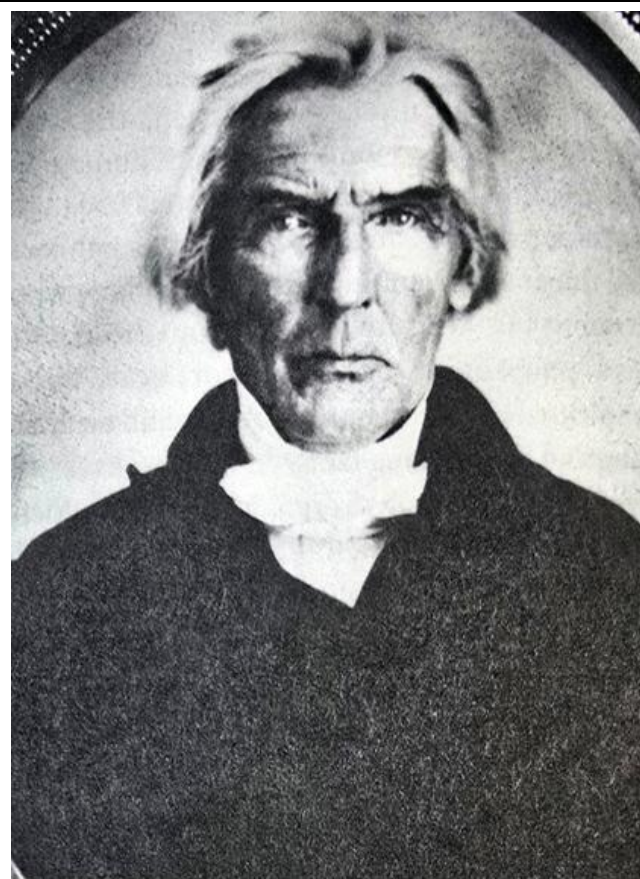
- 스톤은 열정적 부흥, 삼위일체설 거부, 대속론 거부(도덕 영향설 주장), 열린 성찬, 침례 비절대화를 강조한 개혁가였다.
- 캠벨은 합리주의적 성경해석, 침례 중심주의, 고대 복음·질서 회복을 강조한 개혁가였다.
- 그러나 후대 신학자들은 이 두 줄기를 하나로 묶어 스톤-캠벨 운동이라 불렀다.
- 스톤이 1844년 사망하자, 캠벨은 “그는 많은 사람을 성경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그의 신학적 오류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스톤의 묘비에 “그(the) 저명한 개혁가”라고 새겨지자, 캠벨은 “한(a) 저명한 개혁가”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17. 퍼거슨-팬닝-리처드슨 사건 • 353

“우리는 우리 진영의 어느 곳에서도 이보다 더 취약하거나 더 비난 받을 만한 성격의 글을 읽어본 적이 없다.”(p. 359)

핵심 요약

- 제17장은 알렉산더 캠벨이 말년에 겪은 가장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세 갈등, 퍼거슨, 팬닝, 리처드슨 사건이 어떻게 서로 얽혀 그의 운동과 인간관계, 그리고 정신적 쇠퇴까지 드러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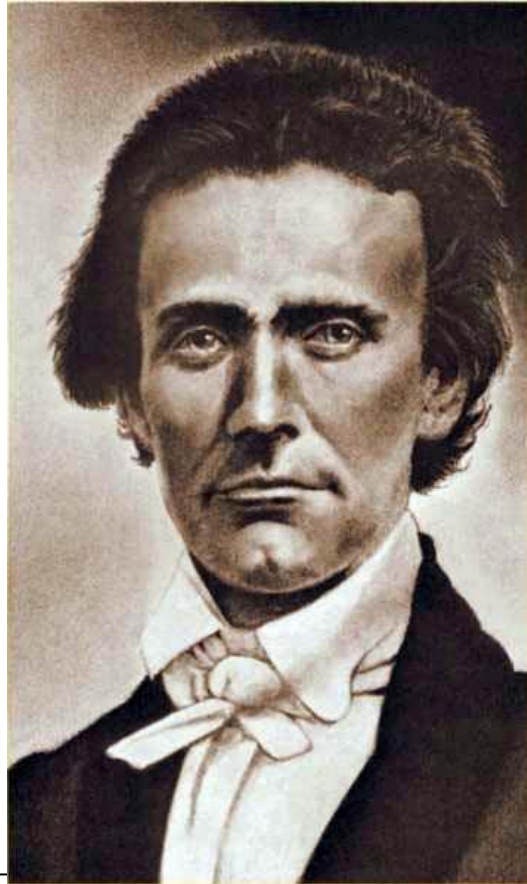
Alexander Campbell
1788-1866

Jesse B. Ferguson
1819-1870

Robert Richardson
1806-1876

Tolbert Fanning
1810-1874

제시 퍼거슨은 내슈빌 그리스도의 교회의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목회자이자 Christian Magazine의 편집인이었다. 퍼거슨이 1852년 4월 호에 베드로전서 3:18-4:6에 대한 논쟁적인 해석을 게재하자, 이 해석에 대해 알렉산더 캠퐰이 날카롭게 대응하였다. 1200명을 수용할 예배당을 건축할 만큼 촉망 받던 젊은 퍼거슨은 결과적으로 스톤-캠퐰운동권을 떠나 **보편(만인구원)주의, 유니테리언주의, 심령주의를 수용**하였다. 이로 인해서 캠퐰은 동료인 의사 로버트 리처드슨 뿐 아니라 톨버트 팬닝과도 소원해졌다.



제시 밥콕 퍼거슨(D.D., Jesse Babcock Ferguson, 1819-1870)의 묘비
퍼거슨은 인쇄공 소년에서 가장 영예롭고 존경받는 강단 설교자가 되었다. 그러나 1200명을
수용하는 새 예배당은 **캠벨 퍼거슨 분열의 결과로 1857년 4월 8일 전소**되었고, 퍼거슨은
교회 사임 후 삶이 피폐해졌으며, 부부와 외동딸은 60세를 넘기지 못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인기 설교자들과 세상의 찬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는 슬픈
교훈이다.”**고 David Lipscomb는 Gospel Advocate(Sept. 22, 1870)지에 썼다.

18. 노예제도 - 이 운동에서 가장 큰 위협 • 374

“남부와 북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정신적 일치를 유지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표이며. 그 목적을 위해 나는 신약성서가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법률 제정을 허가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천교의 조건으로 삼도록 문자로나 정신으로나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p. 376)

핵심 요약

- 제18장은 노예제도가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운동을 가장 크게 위협한 정치·신학적 폭풍이었다는 것과 캠벨이 분열을 막기 위해 ‘온건주의’를 선택했지만, 그의 온건함은 결국 누구에게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 **캠벨 부자는** 노예제도를 불편해한 **온건파**였지만, 노예 인권보다 **백인 사회 안정**을 더 우선시했고, 노예제로 인해서 개혁 운동이 분열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 알렉산더의 전략은 백인 노예소유자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교육-점진적 해방**이었다.
- **1840-50년대**에 감리교와 침례교가 각각 분열(1844)하였고, 도망 노예법 통과(1850), 베다니 대학에서 소요사태(1855)가 있었다.
- 캠벨은 1845년 “**미국 노예제도에 관한 우리의 입장**” 연재에서 노예제는 국가에 해롭지만, **성서적으로 죄가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 캠벨은 **도망노예법(1850)**을 합헌으로 보았다. 점점 양극화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온건파 입장은 설 자리가 없었고, 스톤-캠벨 운동도 분열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반세기 후인 1906년 분열).

19. 남북 전쟁과 새천년 • 394

“우리의 태양이 일찍이 비춘 모든 괴물 같은 일 중에서도, 자칭 기독교 국가들이 서로에게 분노와 복수를 퍼붓는 행위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까닭 없는 사악함의 절정을 장식한다.”(p. 405)

핵심 요약

- 제19장은 남북전쟁(1861-65)이 알렉산더 캠벨의 평생 비전, 고대 복음의 회복과 새천년 시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의 말년을 절망과 쇠약으로 어떻게 몰아넣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 1861년 4월, 72세의 캠벨은 베다니 대학 재건(1857년 12월 본관 소실)을 위한 모금 여행 중에 전쟁 소식을 듣고 즉시 귀환하였다.
- 캠벨의 낙관론은 멕시코 전쟁(1846-48), 교파 분열, 노예제 논쟁으로 인해 붕괴되었다.
- 전쟁으로 인해 캠벨의 사역은 마비됐고, 북부에서도 그가 노예제 온건론자였다는 이유로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 캠벨의 가족 구성원들은 연방파 vs. 분리파로 극렬하게 갈라졌다.
- 캠벨의 새천년 비전은 “하나 된 미국 → 하나 된 교회 → 새천년 시대”라는 구조였는데, 남북전쟁은 이 구조를 완전히 파괴했다.
- 장남 알렉스 주니어는 남부군에 가담한 징벌로 전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서 가족 인맥의 도움으로 대통령의 특사를 어렵게 받아냈다.
“알렉산더 캠벨은 이 사건들을 슬픔으로 지켜보았다”(p. 413).

20. 한 개혁가의 죽음 • 414

“우리는 여전히 낙담해 있지만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며... 그분의 도움과 축복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지속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다.”(p. 414)

핵심 요약

- 제20장은 캠벨의 말년의 쇠퇴, 가족 갈등, 유산 분쟁으로 인한 인간적인 복잡성과 그의 운동이 이후 세계적 종교 공동체로 성장했지만, 캠벨 개인의 삶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긴장 상태였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 알렉산더 캠벨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1866년 3월 4일, 78세로 별세했다.
- 사위 펜들턴은 17쪽에 달하는 장문의 부고를 통해 캠벨을 위대한 개혁자로 찬양했고, 그 후로도 미화된 추모사가 계속 쏟아졌다.
- 알렉산더 캠벨 사후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남긴 엄청난 부에 대한 유산 분쟁이었다. 유언장(1862)에는 첫째 부인 마거릿의 손주들에게 적은 액수의 돈만 남겨졌고, 대부분의 재산은 둘째 부인 셀리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
- 마거릿 손주들이 제기한 소송은 1868년에 속개된 재판에서 셀리나 측 변호인이었던 제임스 A. 가필드가 승리로 장식했다.
- 캠벨은 “고대 복음과 질서의 회복”을 강조했지만, 정작 그의 가족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지 못한 채 분열을 겪었다.

21. 알렉산더 캠벨의 그림자 • 430

“그리스도인이 찾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이것은 몇 가지 것들에 대한 정확성에 있지 않고, 알려진 모든 진실에 대한 전반적인 헌신에 있다.”(pp. 230, 438)

핵심 요약

- 제21장은 알렉산더의 ‘빛과 그림자’ [파장(波長)과 비상(飛上)]을 균형 있게 조명하며, 그가 성인(聖人)처럼 미화됐지만, 실제로는 복잡하고 모순적이었으며, 동시에 미국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 캠벨사후에 로버트 리처드슨이 쓴 <회고록>이 그를 영웅적인 개혁가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리처드슨은 캠벨의 주치의, 절친한 동료, 베다니 대학의 공동 설립자 및 과학 교수였다.
- 지도자들은 캠벨을 높이 평가했지만, 일반 교인들은 “우리의 뿌리는 신약성경이지, 스톤-캠벨 운동이 아니다”라는 비역사적 태도 때문에 알렉산더 캠벨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 캠벨은 엘리트주의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기도·성만찬·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깊은 영적 감수성을 보였다.
- 성경 중심주의, 원시 기독교 회복, 단순한 예배, 선교 열정으로 전 세계 800만 명 규모의 운동으로 성장시킨 빛(陽)도 있고, 캠벨 자신이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신화를 받아들였고, 후대 교회들도 인종 분리와 차별을 지지하면서 다인종 교회 비율이 매우 낮은 그림자(陰)도 있다.

- 알렉산더 캠벨은 **침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강조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 충분하다고도 설교했다.**
- 알렉산더 캠벨은 그가 저술한 방대한 글로 인해서 **종파주의자와 교회일치주의자 모두가 자기들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을 만큼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 알렉산더 캠벨은 뛰어났지만 오만했고, 영적이었지만 엘리트주의적이었으며, 개혁적이었지만 인종적 편견을 가진, 지칠 줄 모르는 다작가였으며, 기독교 세계에 지속적 영향을 남긴 지도자였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께 징계도 받은 사람이었다.”
(p. 443)

결어

- 21세기 한국 교회,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분열과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반면에 **성경적 교회 회복에 대한 갈망도 커지고 있다**. 이것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자신의 뿌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를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 21세기 한국 교회가 알렉산더 캠벨에게서 배워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 성경 중심성
 - 교회의 단순성
 - 신약성경적 예배 회복
 - 교단주의 극복과 일치
 - 신앙과 실천의 일치